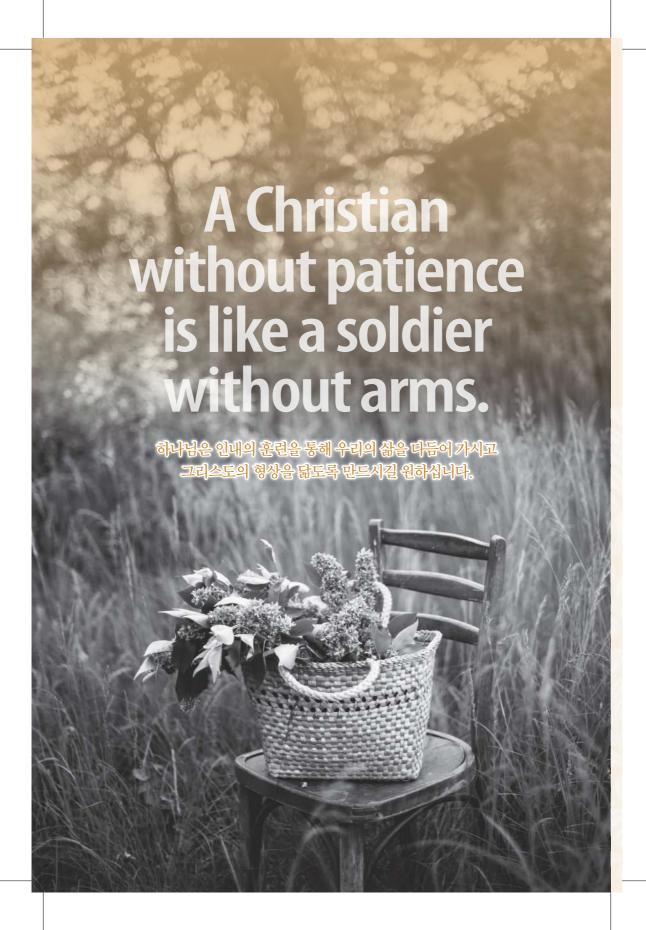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CINNA

1







Dear Lord 주님,

From September 2022, 9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화요일·Tue
11
2022 JANUARY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어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0

5 매진기

>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악을 노이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게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 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빛고 장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 한 아들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1 세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으로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 2 _{묵상・}창세기 9:20-27
- 3 통독·창세기 9장
- 20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
 - ²³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 음처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 더라
 - ²⁴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음 알고
 - ²⁵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 의 종이 되기를 워하노라하고
 - ²⁶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 안은 셈의 종이 되고
 - ²⁷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영더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horthers.

月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Modificion Genesis 9:20-27

Reading Han • Genesis 9

 $^{\rm 20}$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yard.

- $^{\rm 21}$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 ²⁴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 $^{\rm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27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당 국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처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③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목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간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ayer for Churches & Pastans 영커리지한인연합리교회, 금완째(AK) 기쁨의 및 졌은 ((AL) 한인송회, 하인교회 (天동체를 위한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 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펜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 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참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업리, 뜻, 계획'이자, 사람들의 그것과 는 분명 다름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겠지만 만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 '업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음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으며 이 믿음 위에서 싫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만음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22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기쁨의 언덕으로]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마무리는이렇게!

지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모임 장소 Tip!

→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2 September

09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4	5	로마서 Romans 4장 □	6	로마서 Romans 5장 □
11	12	로마서 Romans 10장 □	13	로마서 Romans 11장 □
18	19	로마서 Romans 16장 □	20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2장 □
25	26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8-9장 □	27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0장 □

WE	DNESDAY	TH	IURSDAY	FRIDAY	SATURDAY
		1	로마서 Romans 1장 🗆	2 로마서 Romans 2장 \square	로마서 Romans 3장□
7	로마서 Romans 6장 ロ	8	로마서 Romans 7장 ロ	9 로마서 Romans 8장 □	로마서 Romans 9장 \square
14	로마서 Romans 12장 ロ	15	로마서 Romans 13장 🗆	로마서 Romans 14장 🗆	로마서 Romans 15장□
21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3장 □	22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4:1-5:10 \square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5:11-7:1 □	24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7:2-16 □
28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1장 □	29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2장 □	30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3장 □	
				0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_왜읽어야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어떤보배인가

작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3 예수님의 삶속에 나타난 겸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눅 22:27)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내면적인 생활을 잘 나타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 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을 이끄시는 동기에 대해 자주 언급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역사에 임한 능력과 정신에 대한 당신의 마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겸손이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가장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겸손은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피조물의 순전한 동의(simple consen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겸손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entire subordination)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해 귀를 기울여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님(nothing, not)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본받아 바울도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무것 (nothing) 도스스로 할수 없다니" (요 5:19)
"내가 아무것도 (nothing)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 5:30)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not)" (요 6:38)
"내 교후은 내것이 아니요 (not)" (요 7:16)

13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not)" (요 7:28)
"내가 스스로 아무것 (nothing) 도 하지 아니하고" (요 8:28)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not)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요 8:42)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no)..." (요 8:50)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not)" (요 14:40)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not)" (요 14:24)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눅 22:27)

이러한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역사하심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 지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 류를 구원하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EOSan C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로마서 Romans

로마서는 바울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이기도 하면서 오랜 시대에 걸쳐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중요성 또한 인정받아 왔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 '이신칭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죄성과 심판, 하나님의 구원, 믿음과 은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교리적 내용뿐만 아니라 윤리적 실천명령까지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지난 이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데 많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 삶이 변화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로마서는 광명한 빛이며 성경 전체를 비추기에 충분하다",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도 모라비안교도들이 영국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strangely warmed)' 심령의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많은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서신임이틀림없습니다.

로마서의 저자

로마서 1장 1절은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역사적 상황들과 문학적 형태, 용어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도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의하면 로마서는 더디오에 대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의견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와 장소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행 20:1-6, 롬 15:2, 32). 일반적으로 57-58년 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길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갈 2:9-10, 고전 16:1-6, 고후 8-9장)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밝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신 보다후에 기록된 서신임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의 기록목적

1) 선교적 목적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마게도냐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이후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이제는 이지 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선교에 큰 열망을 가지고 있고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의 동편에서 자기의 임무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이제 로마의 서쪽이자 로마제국의 땅끝, 서바나(스페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서바나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 원했습니다. 로마는 지리적으로는 고린도에서 서바나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으며,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 교인들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교회에 자기의 방문을 알리고, 그의 목적을 분명히 했으며, 자기

가전하는복음의 내용과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2) 로마교회의 분열과 연합

로마교회는 교회 내의 분열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교회는 사도들이나로마인들이 아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강림을 경험한 후 로마로 돌아와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교회는 다양한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세계 각국의 문화가 모이는 로마라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까지 더해져 복잡한 구성과 형태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로마교회에는 황제 클라우디오(Claudio) 칙령에 의해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돌아오면서 유대인이 없던 동안 다수가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로마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종족과 문화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 인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상충 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 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복음과 믿음, 하나님의 의와 은혜라는 기독교 교리의 주 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곧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생애를 바 쳐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담은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와 주요 내용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라고도 하는데,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은 얻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만으로만 하나님의 의,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먼저 "모든 사람은 죄인(롬 3:9-10, 2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2:1-3:8)도,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1:18-32)도 모두 죄에 메인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워에 이를 수 있습니다

(3:22).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3:24). 이 것이 바울이 죽기까지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5장).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은혜 아래에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6장).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며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7~8장).

이제 바울은 9-11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10:3).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10:13)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후반부인 12-1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에 대해 바울은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12:1).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며, 이웃과 화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하며(14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15장)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삶의 덕목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롬 15:16)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에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감사와 축복의 말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역 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길고 위대한 편지를 마칩니다(16장).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감정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서신입니다. 또한 교리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은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 서 이 편지를 사도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흐르는 물 결처럼 잔잔하게, 가끔은 부딪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은 파도와 같은 어투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1-7장,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고린도 교인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8-9장, 자신을 비판하는 대적자들과 그들에게 설득당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이 도전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10-13장이 그것입니다.

저자와 기록연대, 기록장소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서신의 문체나 사상의 일관성이나 고린도전 서의 내용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의 서신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고 린도후서 1장 1장은 본서신이 바울의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8은 바울이 오순절 직전에 서신을 썼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때를 주후 54년(또는 55년) 5월 초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1이하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고린도 교회에서의 연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10과 9:2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난해에" 연보를 시작했다고 씁니다. 즉 두 서신의 연대 관계는 이 어구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마게도냐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시를 시행하고 그의 "눈물의 편지"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위해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나서 그 결과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자 거기서 전도할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게도냐에서 만났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서신이 잘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바울이 기뻐하게 된 것은 주후 55년(또는 56년) 가을에 쓰여진 고린도후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록목적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첫 편지만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 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 하려 했으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도를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2:4).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이 서신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후에 바울은 편지를 전하러 갔던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2:5-11;7:9-10).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7:6,13-16) 고린 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서신을 통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를 요청했으며,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사도권을 변증하고자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신학적 주제들

1.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시며(1:2; 8:1; 9:14) 자비로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1:3-4; 7:6).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1:22; 5:5). 성령을 성도에게 보내 주심으로 생명을 보장해 주셨고(5:5)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성령체험이 구원의 보증이며 구원을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4:14) 성도들 또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1:9-10). 그러므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과 죽음 앞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바울을 구원하셨으며(1:10) 그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3:6).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하셨으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화목을 전파하는 사역을 주셨습니다(5:19).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고(5:21),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날을 도래시키셨습니다(6:1-2).

2.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1:2)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5:1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4:4)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즉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이십니다(5:18). 하늘의 부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성도가 영적인 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육신하심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8:9). 이 같은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낮아지심을 통해 성도는 영적인 축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성령

성령은 장차 성도가 받을 기업과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1:22; 5:5). 성령을 선물

로 받은 자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는 율법과는 달리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3:6-7). 즉 율법의시대는 끝나고 새 언약의시대가 도래했으며 성령을 체함한 자는 의와 생명과 자유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3:17-18).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1:1)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공유해서는 안됩니다(6:14-7:1). 이는 불신자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속은 구별되어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백성은 세속적 인간의 삶과 가치관을 수용해서는 안됩니다(7:1). 8장을 통해 교회는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전적으로 후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한금을 해야합니다(9:7).

5. 고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적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1:3-11; 6:4-10; 11:23-29).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1:8)이 너무 힘겨워서 살 소망까지 상실할 만큼 극도로 어려운 고난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신앙과 삶을 통해 고난에 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1:3-4) 도와주신다(1:10)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처했을 때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야합니다(1:9). 또한 고난을 경험한 자는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합니다(1:6, 7, 10). 성도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자랑으로 삼아야합니다(11:30). 고난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아야합니다(4:1, 16).

목요일·Thu 01

믿음으로 얻는 구원

The Precious Blood of Jes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의 복음이란 그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 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새269장(통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묵상·**로마서 1:18-25**

통독·로마서 1장

-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 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 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 느니라
-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 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 히 차송할 이시로다 아메

Reading Insight ······

Acceptance of the Gospel of God means that the Son of God, Jesus, becomes our LORD and Christ. All sinners are bound to die in accordance with God's law but can be saved by believing in the Son of God, our LORD Jesus Christ.

☐ Hymn269 The Precious Blood of Jesus

Meditation • Romans 1:18-25

Reading Plan · Romans 1

- 18 For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en, who by their unrighteousness suppress the truth.
- 19 For what can be known about God is plain to them, because God has shown it to them.
- 20 For his invisible attributes, namely,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perceived, eve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in the things that have been made. So they are without excuse.
- 21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honor him as God or give thanks to him, but they became futile in their thinking,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 ²²Claiming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 23 and exchanged the glory of the immortal God for images resembling mortal man and birds and animals and creeping things.
- 24 Therefore God gave them up in the lusts of their hearts to impurity, to the dishonoring of their bodies among themselves.
- 25 because they exchanged the truth about God for a lie and worshiped and served the creature rather than the Creator, who is blessed forever! Am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이시고 알려주시고자 하 신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What are the things that God wants to reveal through those he created? (v. 20)

당신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What part of you do you think reveals the image of God?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진성인(NY)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 유화성(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 Things That Might Reveal God

한 여자 권사님께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저녁, 해가 지는 노을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노을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분명이를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권사님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 때로는 허리케인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만물들을 가까이 대하듯이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만물을 통해서 그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피조물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I once heard a deaconess' story about how she first began attending the church. One evening, she was watching the sunset and felt its natural beauty. She realized there must be a creator who created such beauty and that it must have been God. She then began attending church.

Apostle Paul affirmed that God had clearly manifested His eternal capability and divinity to all creatures. Therefore, no one can claim that they do not know God.

The character of God is revealed fully throughout the world created by Him. God reveals Himself through all natural creatures that come into contact with us and sometimes even through natural disasters like hurricanes and earthquakes. God is not far away from us, but reveals His existence even through all creatures that we come into contact with.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erefore, we must work harder than anything else to reveal God's capability and divinity. We must live our life that befits us as created to reveal the beauty of God to those who do not know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September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Righteous

Judgment of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생을 얻고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새180장(통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묵상·**로마서 2:1-11**

통독·로마서 2장

-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 2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줄 우리가 아노라
-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 4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 노를 네게 쌓는도다
- 6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 7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 9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Reading Insight «

All human beings are to receive the judgment of God. The basis of the judgment is Jesus Christ. Therefore, we must live our life of peace with perseverance and good deeds and acquire an eternal life of honor and glory that will not perish.

3 Hymn180 When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

Meditation • Romans 2:1-11

Reading Plan • Romans 2

- 1 Therefore you have no excuse, O man, every one of you who judges. For in passing judgment on another you condemn yourself, because you, the judge, practice the very same things.
- 2 We know that the judgment of God rightly falls on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 ³ Do you suppose, O man--you who judge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and yet do them yourself--that you will escape the judgment of God?
- 4 Or do you presume on the riches of his kindness and forbearance and patience, not knowing that God's kindness is meant to lead you to repentance?
- ⁵ But because of your hard and impenitent heart you are storing up wrath for yourself on the day of wrath when God's righteous judgment will be revealed.
- ⁶ He will render to each one according to his works:
- 7 to those who by patience in well-doing seek for glory and honor and immortality, he will give eternal life;
- 8 but for those who are self-seeking and do not obey the truth, but obey unrighteousness, there will be wrath and fury.
- ⁹ There will be tribulation and distress for every human being who does evil, the Jew first and also the Greek,
- 10 but glory and honor and peace for everyone who does good, the Jew first and also the Greek.
- 11 For God shows no partialit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 의 무엇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 니까? (4절)

What does scripture specifically say about how condemning others is like despising God? (v. 4)

다른 이들의 잘못됨을 봤을 때에 당신은 정죄하는 편이십니까? 인 자함으로 용납하는 편이십니까? When you see the faults of others, are you the condemning type or forgiving type with mercy?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우리감리교회, 김동현(NY) 웨체스터중앙교회, 김철식(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정죄가 아니라 인자 Not Condemnation But Mercy

보통 재판이 시작되면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판결이 잘못되어,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로 판결 받아 오랜 시간 감옥에 갔다가 무죄로 판결되어 감옥에서 나온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을 판단함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 받는 사람과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죄인을 용납하시며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대하여 주셔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할일이 있을 때에 정죄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으로 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Once a trial starts the court proceedings take a long time until the final verdict. A fair and just verdict requires lots of time to collect evidence and conduct fact checks. In spite of the efforts, sometimes wrong verdicts can be handed down. Sometimes innocent people can spend a long time in jail, even if the verdict is later reversed and the wrongly incarcerated is released. It is difficult to judge others. In spite of that difficulty, people easily judge and condemn others. Apostle Paul said that judging others meant condemning ourselves because the person passing judgment is doing the same thing as the judged.

Though God knew our sins exactly as they were, God did not condemn our sins. Instead, God accepted the sinners as they were and received the sinners as children of God by His mercy and patience. Judging others is to condemn ourselves and is to despise the abundance of grace bestowed to us by God. As we encounter moments to judge others, rather than taking the attitude of condemnation, let us remember that God accepted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and treated us with mercy and patience. As a result, we must reveal the abundance of grace bestowed to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SI-Sat

2022 September

화목제물 – 예수그리스도

Peace Offering

– Jesus Chri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 예수그리스도, 그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 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묵상·**로마서** 3:8-18

통독·로마서 3장

- 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 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 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 였느니라
-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 니 하나도 없도다
-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 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 16파멸과 고생이 그길에 있어
-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 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Reading Insight

Because we are all sinners, we are bound to receive the judgment of God. But God used the blood of Jesus Christ as a peace offering and opened the way for peace with God for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 Hymn93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Meditation • Romans 3:8–18

Reading Plan · Romans 3

- 8 And why not do evil that good may come?--as some people slanderously charge us with saying. Their condemnation is just.
- 9 What then? Are we Jews any better off? No, not at all. For we have already charged that all, both Jews and Greeks, are under sin.
- 10 as it is written: "None is righteous, no, not one;
- 11 no one understands; no one seeks for God.
- 12 All have turned aside; together they have become worthless; no one does good, not even one."
- 13 "Their throat is an open grave; they use their tongues to deceive." "The venom of asps is under their lips."
- 14 "Their mouth is full of curses and bitterness."
- 15 "Their feet are swift to shed blood:
- 16 in their paths are ruin and misery,
- 17 and the way of peace they have not known."
- 18 "There is no fear of God before their ey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엇 아 래에 있다고 말합니까? (9절) What does scripture say the Jews and the Greek will experience? (v. 9)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 놓 아야 할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nature of sin that you need to lay before God today?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퀸즈중앙감리교회, 이요섭(NY)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

Grace to Understand That I Am a Sinner

누군가 당신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불쾌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남으로부터 듣는 것은 불쾌한 일이지만, 사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잠 12:15)"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옳고 의로운 것처럼 여겨질 때에 내가 어리석어진 것은 아닌지 염려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때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발견될 때에 속상한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크고 풍성하십니다.

If someone said to your face, "You are a sinner," you would feel unpleasant. You may even feel the comment was unfair if you tried to live a life of goodness. But the Bible tells us that whether Jew or Greek they are all in sin. This was a shock to the Jewish people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y had the Word of God and they were the righteous people obeying the Word of God.

It is unpleasant when we hear other people calling us sinners, but it takes the grace of God to realize that we are sinners. When we realize that we are sinners, we will seek Jesus Christ and will experience the grace of God for His forgiveness of our sins.

"The way of a fool seems right to him, but a wise man listens to advice" (Prov 12:15). When we feel that we are right and righteous, we need to worry if we have become foolish. This is becaus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we have become insensitive to our sins, but not because we have no sins. When we discover sins within us, it hurts. But on the other hand, this discovery can become an opportunity to seek God and to experience the forgiveness, grace, and love of God. The world is full of sins, but the grace of God is bigger and fulle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04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 경 본 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 나 님 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누군가의 품이 되어 준다는 것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 서울)

갈릴리에 머문 사람 -서덕석, 〈조지송 평전〉, 서해문집

"사람은 그의 전체적인 상황, 그가 응답해야 하는 요구의 술어로만 이해될 수 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의 본성이 아니라 그가 그 본성으로 무엇을 하느냐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 선집 3, 〈누가 사람이냐〉, 이현주 옮김, 종로서적, p.15).

인간-존재는 인간-되어감이다. 인간은 자기 외부 세계와 접촉하면서 자기 삶을 형성해 나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인 동시에 다른 사람이다. 같음은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형성된 습관이고, 다름은 일상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빚어지는 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저자이다. 주어진 시간의 잉크가 다 마르기 전까지 삶의 이야기를 빚어가는 것이 인생의 과제이다.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대개 어떤 큰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말이 참 크게 다가온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이야기들의 일부로 존재하는가?'라는 보다 앞선 질문이 해명될 때에만 비로소 대답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억압과 수탈로 점철된 인간 역사를 거슬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며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을 보며 세상은 어리석다고 비웃는다. 하지만 그런 비웃음을 감수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기

획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붙드는 사람들이다. 〈조지송 평전〉은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한 인물에 대한 평전인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이들의 사회적 전기이기도 하다. 8부로 구성된 이 책은 조지송의 어린 시절의 가정적, 신앙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산업선 교에 입무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기적으로 서술한 1부와 그의 삶을 회상하는 옛 동 지들의 회고를 담은 8부를 액자 구조로 삼아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 한 활동 이야기가 2부에서 7부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사람이 길을 선택할 때도 있지 만 길이 사람을 선택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이 실은 필연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곤 한다. 농촌 목회를 꿈꾸던 그가 산업선교에 뛰어 들수밖에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산업전도연구원 훈련을 받으며 체험했던 노동 의 경험은 영원히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일종의 첫 키스의 추억과도 같은 것이 었다. 소외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노동의 괴로움을 경험했기 에, 조지송은 그 모든 악조건을 견뎌내며 살아내는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거룩함을 보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의 참 가치를 자각하고, 연대와 돌봄을 통해 자기 권리를 지 켜내도록 돕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사회적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워 역사에 동. 참하는 과정이었다. 조지송은 노동자 선교 활동의 명칭을 '산업전도'에서 '도시산업 선교'로 바꾼다. 저자는 이것이 "선교의 영역을 노동자 개인의 신앙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인간 삶의 전 영역을 선교 대상으로 확립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p.86)고 밝힌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라는 큰 맥락에 근거한 것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자리에 녹아들어갔던 체험 덕분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지향하게 된 것이었다. 민중신학이 태동하기 전에 이미 노동자 혹은 민중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던 것이다.

조지송의 삶을 몇 마디 말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어를 통해 그의 삶 혹은 지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현장성, 학습, 자기 변화, 조직, 네트워크, 균형과 절제가 그것이다. 그의 실천은 'doing theology'의 전형이었다.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장의 요구에 신학적으로 응답한 삶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노동자들의 현실이야말로 그의 신학함의 자리였다. 그렇기에 그는 끊임없이 배웠고 그 배움에 근거하여 자기를 혁신해 나갔다. 한 가지 방 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자유롭게 뻗어나가며 새로운 상황과 접속한다는 의미에서 리좀(rhizome)적이라 할수 있다. 노조 운동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뤄냈고, 노동자들의 품위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주도했던 사회적 실천을 세계 교회에 알리고, 그들의 지지와 후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선한 꿈을 공유하는 이들의 네트워크는 고난의 시기에 서로를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궁하면 통하고, 통하면 변하고, 변하면 오래간다(窮即通, 通即變, 變即欠)는 옛말이 그대로 적용된 예라하겠다.

조지송의 실천이 리좀적이라 해서 중심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행동을 견인한 두가지 동기가 있다. 하나는 예수 정신을 살아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였다. 사실이 둘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있어 노동자들은 역사적 대의를 위해 동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견인하는 소중한 주체였다. 주체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가 사회 운동을 예술과 결합시키려 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예술에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간임을 자각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어 그것을 읽고 보고 감상한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 현장 속에서 겪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인간에 대한 모독임을 깨달아 비인간적인 것에 분노하고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p.281)이라는 저자의 말은 그 핵심을 꿰뚫고 있다. 그런 중심이 확고했기에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는 균형과 절제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보수적인 교회가 산업선교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때에도 그는 교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기본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그들을 경멸하거나 배척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잘 전달될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병환으로 인해 그는 현장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이끈 '바보들의 행진' 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역사적 예수의 삶이 끝난 십자가로부터 수없이 많은 작은

예수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조지송은 그를 계승한 이들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폭력을 겪은 후에 사멸성에 대비되는 탄생성(natality)의 개념을 제시했다. 죽음과 절망의 심연에서조차 희망을 향해 고개를 드는 인간의 끈질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조지송이라는 이름은 '탄생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참임을 보여주는 기표로 우리 가운데 있다.

《조지송 평전》은 인물 평전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서덕석목 사가 10여 년 동안 들인 각고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한 인물의 생명 사회적 전기를 손에 들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 하나가 추가되었다. 꼼꼼한 사료 정리와 다양한 이야기들의 적절한 배치,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명료한 문장은 책의 가치를 한껏 높여주고 있다. 터키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르한 파묵은 자기의 글쓰기를 일러 "바늘로 우물 파기"라고 말한 바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실천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수없이 많은 자료의 숲속에서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서술하기 위해 그가들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갈수록 지리멸렬을 면치 못하는 한국 교회는 조지송이 남겨준 신앙적 실천적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포획된 우리 사회의 현실속에서 교회의 증언은 그리고 실천은 어떠해야 할까? 조지송의 말은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고한 암시이다.

"교회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어야 해요. 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화려한 교회에 가면 정말 예수님 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가요. (…) 민중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통을 당해본 체험을 가진 교회라야 참다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룰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p.366)

조지송은 우리 앞에 물음표로 서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차례이다.

월요일·Mon

2022 September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믿음

The Faith Not to Doubt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묵상·로마서 4:3-12

통독·로마서 4장

-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 4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 **7**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 8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 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 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 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 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 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Reading Insight

Abraham was saved not by works but by faith. We must not doubt the promise of God and increase our faith for the glory of God, and we need to be called righteous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7 Hymn545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Meditation • Romans 4:3-12

Reading Plan · Romans 4

- ³ For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to him as righteousness."
- 4 Now to the one who works, his wages are not counted as a gift but as his due.
- 5 And to the one who does not work but believes i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counted as righteousness,
- 6 just as David also speaks of the blessing of the one to whom God coun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 7 "Blessed are those whose lawless deeds are forgiven, and whose sins are covered;
- 8 blessed is the man against whom the Lord will not count his sin."
- ⁹ Is this blessing then only for the circumcised, or also for the uncircumcised? We say that faith was counted to Abraham as righteousness.
- 10 How then was it counted to him? Was it before or after he had been circumcised? It was not after, but before he was circumcised.
- 11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as a seal of the righteousness that he had by faith while he was still uncircumcised. The purpose was to make him the father of all who believe without being circumcised, so that righteousness would be counted to them as well,
- 12 and to make him the father of the circumcised who are not merely circumcised but who also walk in the footsteps of the faith that our father Abraham had before he was circumcis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23-24절)

Where is our justification? How could we be justified as being righteous? (vv. 23–24)

당신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precious among all the blessings you have received?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데이튼한인연합교회, 이승필(OH)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 유보현(OH)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

The One Justified as the Righteous

한국에는 국경일과 같은 기념일에 죄수 중에서 모범이 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대가를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지은 죄를 용서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말을 빌어서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람은 죄를 짓지만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곧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갇힐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살아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져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음을 기억하며, 죄사함의 복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In Korea, sometimes prisoners with good behavior are pardoned and released during important national holidays. There is no better news than being freed upon forgiveness from the price of sins.

If this is true, then those Christians believing in Jesus Christ are truly blessed people because their sins are forgiven. Paul quoted David, "Blessed are they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Blessed is the man whose sin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vv. 7–8).

We mortals commit sins but we are desperate people without the ability to avoid death that is the wage for our sins. We are destined to be locked up in hell, our eternal prison. But God opened a way for our sins to be forgiven. We do not have to pay fines, nor offer service of labor, nor serve time in prison. There is nothing required of us. The only requirement is to believe that Jesus died to pay for my sin and He is my savior. Salvation is the free gift of grace from God to the believers of Jesus. However, we must remember that God paid the most precious price to bestow His grace to us, and we must be grateful for the blessing of forgiveness of our sin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September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

Affirmation
of the Love of God
– Jesus Chri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새410장(통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묵상·로마서 5:12-21

통독·로마서 5장

- 12 그러므로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 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은 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 17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 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 19 한사람이순종하지아니함으로많은사람이죄인된것 같이한사람이순종하심으로많은사람이의인이되리라
-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 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Reading Insight «

Because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we gained the privilege of being justified, were saved from the rage of God, and can live in peace with God.

☐ Hymn410 There Comes to My Heart

Meditation • Romans 5:12-21

Reading Plan · Romans 5

- 12 Therefore, just as sin came into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 13 for sin indeed was in the world before the law was given, but sin is not counted where there is no law.
- 14 Yet death reigned from Adam to Moses, even over those whose sinning was not like the transgression of Adam, who was a type of the one who was to come.
- 15 But the free gift is not like the trespass. For if many died through one man's trespass, much more have the grace of God and the free gift by the grace of that one man Jesus Christ abounded for many.
- **16** And the free gift is not like the result of that one man's sin. For the judgment following one trespass brought condemnation, but the free gift following many trespasses brought justification.
- 17 For if, because of one man's trespass, death reigned through that one man, much more will those who receive the abundance of grace and the free gift of righteousness reign in life through the one man Jesus Christ.
- 18 Therefore, as one trespass led to condemnation for all men, so one act of righteousness leads to justification and life for all men.
- 19 For as by the one man's disobedience the many were made sinners, so by the one man's obedience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 20 Now the law came in to increase the trespass,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abounded all the more,
- 21 so that, as sin reigned in death, grace also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leading to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5절) Because one obeyed God, many became righteous, who was that one? (v. 15)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 히 넘침을 경험했나요? When did you experience the overflowing grace of God?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벧엘국제연합감리교회, 이시용(OH) 새생명연합감리교회, 이병희(OH) 목회자를 위한 기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Grace Overflows Where Sins Flourish

저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부흥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마룻바닥에 앉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해 하던 분들이 부흥회를 마친 다음에는 기쁜 얼굴로서로 인사를 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참 희한한 광경입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인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얼마나 많이 자각하며 회개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왕 노릇하던 곳에, 은혜가 왕 노릇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왕 노릇하심을 받으며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I remember attending a revival gathering with my mother when I was young. Adults sat on the wooden floor and prayed with their eyes flooded with tears and noses running. But after the revival meeting, when leaving the church, the same people parted exchanging joyful greetings. That was an amazing sight.

Paul said that where more sins are found, there the more grace overflows. When our sins are forgiven because we believe in Jesus Christ, it is natural that our sorrow turns into joy. But not all places where sins are found overflow with the grace of God. If repentance does not follow when sins are revealed, no grace of God will be experienced. The grace of God does not measure the quantity of our sins but only cares about how deeply we recognize and repent of our sins.

God wants the place where more sins exist so that His grace can overflow. Therefore, God wants to turn the place where sin reigns into a place where grace reigns so that the people will receive eternal life because of Jesus. Those who received the grace of forgiveness of their sins will live where God is King and will receive the grace of eternal lif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PARING OT

2022 September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

Escaped from
Our Sin, We Gained
Justifica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새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새268장(통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묵상·로마서 6:12-19

통독·로마서 6장

-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 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 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 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 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 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Reading Insight «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and a new life was given to Him. We must believe in Jesus, give up our old being, offer ourselves to God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and live an eternal life to reach holiness.

Hymn268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Meditation • Romans 6:12-19

Reading Plan · Romans 6

- 12 Let not sin therefore reign in your mortal body, to make you obey its passions.
- 13 Do not present your members to sin as instruments for unrighteousness, but present yourselves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and your members to God as instruments for righteousness.
- 14 For sin will have no dominion over you, since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 15 What then? Are we to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By no means!
- 16 Do you not know that if you present yourselves to anyone as obedient slaves, you are slaves of the one whom you obey, either of sin, which leads to death, or of obedience, which leads to righteousness?
- 17 But thanks be to God, that you who were once slaves of sin have become obedient from the heart to the standard of teaching to which you were committed.
- 18 and, having been set free from sin, have become slaves of righteousness.
- 19 I am speaking in human terms, because of your natural limitations. For just as you once presented your members as slaves to impurity and to lawlessness leading to more lawlessness, so now present your members as slaves to righteousness leading to sanctificat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감 사하라고 합니까? (17-18절) Why did Paul tell them to be grateful to God? (vv. 17-18)

당신이 의의 무기로 사용 받고 있 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What proof is there that you are being used as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근상(OH)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석(OH)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불의의 무기를 의의 무기로

Turn the Weapons of Injustice Into the Weapons of Righteousness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보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에, "그 재능을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했으면 보다 가지 있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들곤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똑똑하지 않거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자신의 몸을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몸을 사욕(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그 사람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죄인들을 불러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자 하십니다.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죽는 일 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죄에게 종노 릇 하던 불의한 무기 즉 몸의 사욕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죄의 종인 그들을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감사입니다.

There are many smart and capable people incarcerated in prison. When we meet them we cannot help but feel that, "If only they used their talents for better use, they would have had a better life." We feel that it is a shame. People sin not because they are not smart or not capable but because people allow sin to use them thereby becoming slaves to the sin. Sin entices people to follow greed and uses people as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But God wants to call the unrighteous sinners and use them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o be used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he first thing to do is to die. To subdue sin in order not to be ruled by it, we must make sure that our own desire is dead. Then we must obey God. Hence even the unrighteous instrument that was used as the slave of the sin, upon subduing our own desire to its death and obeying God would become the slave of righteousness.

Paul told the followers in the Roman church to be grateful to God because they were once slaves to sin but God made them slaves to righteousness. This is true not only for the followers in the Roman church but also for all followers. We all should be grateful to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율법과 죄

The Law and the Si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에서 해방 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새267장(통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목상·로마서 7:15-25 통독·로마서 7장

-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 써 윸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 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 는죄니라
-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 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 19내가 워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워하지 아 니하는 바악을 행하는도다
-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속에 거하는 죄니라
-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 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 가나를 건져내랴
-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 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 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Reading Insight

The law taught us the sin and we were freed from the law through Jesus Christ. We are no longer bound to the reign of the law and we can live enjoying the law of God with thanksgiving.

☐ Hymn267 Tis the Promise of God

Meditation • Romans 7:15-25

Reading Plan · Romans 7

- 15 For I do not understand my own actions. For I do not do what I want, but I do the very thing I hate.
- 16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I agree with the law, that it is good.
- 17 So now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within me.
- **18** For I know that nothing good dwells in me, that is, in my flesh.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right, but not the ability to carry it out.
- ¹⁹ For I do not do the good I want, but the evil I do not want is what I keep on doing.
- ²⁰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within me.
- 21 So I find it to be a law that when I want to do right, evil lies close at hand.
- 22 For I delight in the law of God, in my inner being,
- 23 but I see in my members another law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captive to the law of sin that dwells in my members.
- **24**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 25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serve the law of God with my mind, but with my flesh I serve the law of si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과 지체 속에 있는 서로 다른 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절)

What did Paul call the two opposing laws, one law of his mind and the other law of sin at work within his members? (v. 23)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 게 됩니까?

When did you find yourself fighting between the law of God and the law of sin?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 TBS(OH)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 장이준(OH)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o Will Rescue Me?

사람이 살면서 탄식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하며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도 자기 자 신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탄식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강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서로 상충합니다. 그리고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바울보다 더 큰 탄식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죄성에 대한 탄식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의 몸에서 건져낼 분임을 알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25절). 우리가 죄의 몸으로 인해서 탄식할 때에 사망의 몸에 건져내셔서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곤고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We sometimes lament. When things do not go the way we want, we despair and lament. Even Paul lamented about himself, and cried, "What a wretched man I am." But then Paul's lament was due to the strong law of sin at work within himself that was holding him down from obeying God's law.

Not only for Paul but also for all followers, there are two opposing laws. When we find our weakness following the law of sin, we cannot help but lament. From that point of view, most of us followers should be in deeper lamentation than Paul.

However, Paul did not despair because of his sinfulness. Paul was sure that Christ would rescue him from his sinful self so he was grateful to God because of Christ (v. 25). While we lament because of our sinful self, it is Jesus Christ who rescues us from the body of death and turns our lament into joy. Though we are as wretched as Paul, we can be joyful and grateful because of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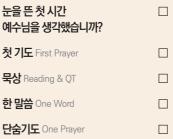
1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agg·Fri

2022 September

하나님의 상속자

Heir to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이상 죄로 인해 정죄 당하지 않고 성 령으로 힘을 얻어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상 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 니다.

♬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묵상·로마서 8:31-39

통독·로마서 8장

-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 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 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자시니라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 아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 을 수 없으리라

Reading Insight «

We the followers of Jesus Christ are no longer subject to judgment because of our sins but can live in the goodness of life boosted by the Holy Spirit. God made us His heir. Therefore, God's love will lead us and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Hymn304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Meditation • Romans 8:31–39

Reading Plan · Romans 8

- 31 What then shall we say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 32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 33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 **34**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more than that, who was raised--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 35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 36 As it is written, "For your sake we are being killed all the day long; we are regard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 37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 **38** For I am sure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rul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 39 no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누구 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 니까? (32절)

God loved us so much that whom did He not spare and give to us? (v. 32)

당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 스도의 대한 사랑을 드러내십니까? How do you show your love of Jesus Christ?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한마당연합감리교회, 이송원(OH)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 성신(OH)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사랑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로 그 사랑이 약해지거나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수많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마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각별하고 끊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 남은 자신을 조롱하며 박해하며, 심지어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님을 사랑할 때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더욱 예수님의 사랑함을 드러내는 증표가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예수 님을 향한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사랑함 을 드러내는 기회인 것입니다.

When people fall in love with someone they expect the love between them to last forever. But not all love can last forever. Paul however affirmed that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ince his conversion, Paul experienced many tribulations, sufferings, persecutions, hunger, dangers, etc. But Paul confessed that during each of those moments, nothing could separate him from his love of Jesus Christ.

The reason why Paul was so sure was not because Paul himself was so strong, but because Jesus Christ loved Paul so much. The love of Jesus Christ toward sinners was special and steadfast. Jesus loved those who ridiculed Him and persecuted Him, and even those who killed Him. Jesus also loved Paul who used to persecute churches. He visited Paul and saved him.

To believe in Jesus is to love Jesus. The tribulations and hardships we face should not diminish our love toward Jesus but rather we must make them opportunities to show our love for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일·Sat

2022 September

약속의 자녀

Children of Promis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약속의 자녀만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 새305장(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묵상·**로마서** 9:14-26

통독・로마서 9장

-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 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 로 말미암음이니라
-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 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 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 들었느냐 말하겠느냐
-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 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 으심으로 관용하시고
-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을 하리요
-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 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Reading Insight «

Even though Paul was anxious that his own people, the Israelites, might not be saved, Paul spoke the truth that only those chosen children of God with promise would be saved.

Hymn305 Amazing Grace

Meditation • Romans 9:14-26

Reading Plan · Romans 9

- 14 What shall we say then? Is there injustice on God's part? By no means!
- 15 For he says to Moses, "I will have mercy on whom I have mercy, and I will have compassion on whom I have compassion."
- 16 So then it depends not on human will or exertion, but on God, who has mercy.
- 17 For the Scripture says to Pharaoh, "For this very purpose I have raised you up, that I might show my power in you, and that my name might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 18 So then he has mercy on whomever he wills, and he hardens whomever he wills.
- 19 You will say to me then, "Why does he still find fault? For who can resist his will?"
- 20 But who are you, O man, to answer back to God? Will what is molded say to its molder, "Why have you made me like this?"
- 21 Has the potter no right over the clay, to make out of the same lump one vessel for honorable use and another for dishonorable use?
- 22 What if God, desiring to show his wrath and to make known his power, has endured with much patience vessels of wrath prepared for destruction,
- 23 in order to make known the riches of his glory for vessels of mercy, which he has prepared beforehand for glory--
- 24 even us whom he has called, not from the Jews only but also from the Gentiles?
- 25 As indeed he says in Hosea, "Those who were not my people I will call 'my people,' and her who was not beloved I will call 'beloved."
- 26 "And in the very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re they will be called 'sons of the living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Why did God say that He raised Pharaoh? (v. 17)

하나님은 당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까? How do you think God is shaping you?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OK)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엄준노(OK)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손길 Handprint of God

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녹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녹로를 발로 돌리고, 손으로는 녹로 위에서 빙빙 도는 진흙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맘에 안 들면 서슴없이 으깨었다가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토기장이는 진흙을 자신 맘대로 빚었고, 진흙은 자신의 모양에 대해서 토기장이에게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토기장이의 진흙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악 함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긍휼하심에서 기인한 것 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요 긍휼히 여기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흙이 어떠한 모양으로 빚어졌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가 있습니다. 어떠 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십니다.

I once saw a potter produce clay pottery. The potter shaped the clay and placed it on the potter's wheel. As he began turning the wheel with the foot-pedal, his hands were busy shaping the clay. The potter readily threw away clay if the shape was not to his satisfaction and reshaped the clay from the beginning. The potter shaped the clay as he wished and the clay could not put up any resistance to the potter.

God had called Abraham, Isaac, and Jacob as if they were clay of the potter. They were chosen by God not because they were better or more righteous than others. Rather they possessed many weaknesses and even some sinful nature. They were called and blessed as children of God solely by the sovereignty and mercy of God.

We are also chosen by God solely based on the absolute sovereignty and mercy of God. What God wants from His followers is that we live in obedience under His sovereignty. How the clay is shaped is up to God, and God has a use for everyone. The clay should be grateful for whatever shape it ends up, as long as the clay has been molded with God's hand. God will shape us as He wish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SEPTEMBER

11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SEPTEMBER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홍진호 목사(시카고중앙연합감리교회, IL)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여인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믿음의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참된 예배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사마리 아 여인은 그러한 영적 생수의 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 인간이 마시는 육신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 일과 현실의 삶을 말씀해 주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시선과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고백한 여인은 이제 진짜 영생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녀의 영혼속에 있는 마음의 갈급함'을 예수님께 꺼내 놓습 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 4:20).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으신 주님은 예배의 본질을 그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in the Holy Spirit)과 진리(in the Truth)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범사에 살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진실한 감사와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은 주일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복되는 우리 매일의 범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 Mon

12

2022 September

구속의 역사

History of Redemp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해 줍니다. 나아가 우리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 새498장(통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묵상·로마서 10:1-10

통독·로마서 10장

-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워을 받게 함이라
-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4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 의 마침이 되시니라
- 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 7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 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 려는 것이라
-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 9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워을 받으리라
-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Reading Insight ·····

Chapter 10 affirms the truth that we will be redeemed if we believe that Jesus is our Lord and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Furthermore, we must be the beautiful feet of delivering the good news of salvation.

☐ Hymn498 Rescue the Perishing

Meditation • Romans 10:1–10

Reading Plan · Romans 10

- 1 Brothers, my heart's desire and prayer to God for them is that they may be saved.
- ² For I bear them witness that they have a zeal for God, but not according to knowledge.
- ³ For, being ignorant of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seeking to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 4 For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 everyone who believes.
- ⁵ For Moses writes about the righteousness that is based on the law, that the person who does the commandments shall live by them.
- 6 But the righteousness based on faith says, "Do not say in your heart, 'Who will ascend into heaven?" (that is, to bring Christ down)
- 7 or "Who will descend into the abyss?" (that is, to bring Christ up from the dead).
- 8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that we proclaim);
- ⁹ because,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 10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and with the mouth one confesses and is sav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4절)

Why did Jesus become the end of the law? (v. 4)

당신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무 슨 일에 열심을 내십니까? What do you do to be more zealous in discerning and knowing God better?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손태원(OK)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 김관영(OK)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지식없는 열심 Zeal without Knowledge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열심이 바른 것을 위한 것인가를 확인해야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과 같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야 구원에 이 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리석게 여기며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헛된 열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도리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성도가 내어야 할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열심인 것입 니다.

It is good that people live a zealous life. But before our zeal, there is one thing we need to confirm. We need to make sure our zeal is for righteousness because unrighteous zeal may bring tribulation.

Before Paul met Jesus, he was zealous to persecute churches because he thought that he was doing it for God. But once he met Jesus, Paul realized that he was wrong.

Now Paul is anxious because he is not sure if his own people of Israel will be saved since they have the same wrong attitude he once had. They thought that their salvation could be earned by righteous works of obeying the law faithfully. They also refused to believe in Jesus and regarded the message of salvation through Jesus as foolish. They became foolish people unable to be saved no matter how hard they worked.

Even though we may be Christians, we can fall into false zeal. We work hard to serve our church and the result may be problematic.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zeal for us as believers is to correctly discern the will of Go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September

모든 사람에게 긍휼하신 하나님

God Is Merciful to Al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접붙임을 얻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자긍함과 높은 마음을 버리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새321장(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묵상•**로마서 11:1-12**

통독·로마서 11장

-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 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자요 베냐민 지파라
- 2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 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 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 3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 4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 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 6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 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 하여졌느니라
-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 9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 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 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Reading Insight «

We must obey God until we are saved by being grafted through faith to God who does not even cherish the main branch. We need to abandon pride and high-mindedness and instead should fear God.

7 Hymn321 My Life, My Love I Give To Thee

Meditation • Romans 11:1-12

Reading Plan · Romans 11

- ¹ I ask, then, has God rejected his people? By no means! For I myself am an Israelite, a descendant of Abraham, a member of the tribe of Benjamin.
- **2** God has not rejected his people whom he foreknew. Do you not know what the Scripture says of Elijah, how he appeals to God against Israel?
- 3 "Lord, they have killed your prophets, they have demolished your altars, and I alone am left, and they seek my life."
- 4 But what is God's reply to him? "I have kept for myself seven thousand men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 5 So to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 6 But if it is by grace, it is no longer on the basis of works; otherwise grace would no longer be grace.
- 7 What then? Israel failed to obtain what it was seeking. The elect obtained it, but the rest were hardened,
- 8 as it is written, "God gave them a spirit of stupor, eyes that would not see and ears that would not hear, down to this very day."
- 9 And David says, "Let their table become a snare and a trap, a stumbling block and a retribution for them;
- 10 let their eyes be darkened so that they cannot see, and bend their backs forever."
- 11 So I ask, did they stumble in order that they might fall? By no means! Rather through their trespass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so as to make Israel jealous.
- 12 Now if their trespass means riches for the world, and if their failure means riches for the Gentiles, how much more will their full inclusion mea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설명 하기 위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Who did Paul reference to explain the remnant of Israel? (v. 2)

당신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시기의 대상이 되기를 원 하십니까?

What kind of target of envy do you wish to be to nonbelievers?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오광석(OR)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신(P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To Cause Envy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잘 되면 부러워하며, 그 사람처럼 되고 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민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적으로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을누리며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기를 받으며,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성도입니다.

People generally envy others who are better than them and wish to become like them. But then Paul said that Christians should become better so that we will be the source of envy of others.

God called Paul to become a prophet for the Gentiles and made him testify for Jesus Christ. Through Paul, many Gentiles became believers of Jesus and were saved. But then the problem was the people of Israel. The people of Israel rejected Jesus and could not be saved. They were treated as if they were abandoned by God. To this, Paul said,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to make Israel envious" (11:11). As Israel watched the Gentiles be saved by believing in Jesus, Paul is saying that the Israelites will eventually believe in Jesus and also be saved.

The world is full of people who are the subject of envy by others. Even among believers, there are many who are the subject of worldly envy. Christians are not the people being envied by worldly standards but rather are the target of jealousy by worldly people. By living a life blessed by God only available to the believers of God while being the target of such jealousy, Christians must live a life to influence the worldly people to return to the Lor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ABSI · Wed

2022 September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The Life of Saved Believer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핍박 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며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묵상·로마서 12:3-13

통독·로마서 12장

-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 게 생각하라
- 4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 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 치는 일로.
- 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 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 9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Reading Insight <>>

Apostle Paul urges believers to offer thei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to God and teaches them to conduct themselves with wisdom in accordance with their faith. Furthermore, Paul urges them to bless even those who persecute them and to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 Hymn420 Take Time to Be Holy

Meditation • Romans 12:3–13

Reading Plan · Romans 12

- ³ For by the grace given to me I say to everyone among you not to think of himself more highly than he ought to think, but to think with sober judgment, each according to the measure of faith that God has assigned.
- 4 For as in one body we have many members, and th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 ⁵ so we, though many, are one body in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ne of another.
- 6 Having gifts that differ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us, let us use them: if prophecy, in proportion to our faith;
- 7 if service, in our serving; the one who teaches, in his teaching;
- 8 the one who exhorts, in his exhortation; the one who contributes, in generosity; the one who leads, with zeal; the one who does acts of mercy, with cheerfulness.
- **9** Let love be genuine. Abhor what is evil; hold fast to what is good.
- **10** Love one another with brotherly affection. Outdo one another in showing honor.
- 11 Do not be slothful in zeal, be fervent in spirit, serve the Lord.
- **12** Rejoice in hope, be patient in tribulation, be constant in prayer.
- 13 Contribute to the needs of the saints and seek to show hospitalit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5절)

What happens when many people come together in Christ and become one body together? (v. 5)

당신은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위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As a member, how do you feel about your role in the church?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 김중혁(PA)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차명훈(P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마땅한 생각 The Right Thoughts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3절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드뭅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눈과 입, 팔, 다리, 심장과 폐와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각 지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심장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고 다른 일들을 한다면 그 몸은 건강에 큰 위협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도 주셨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 도, 때로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목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It is good when people live life guided by right thoughts. In order to do this, they first must have a good self-awareness. This will allow them to act wisely in accordance with their positions and roles in a community.

Paul says to everyone,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faith that God has distributed to each of you " (v. 3). In church, we have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Despite this diversity, they come together in Christ to form one body to be a church. As they function as a church, Paul teaches them to work together wisely in accordance with their faith in God. The human body is made of many parts like eyes, mouth, hands, feet, heart, and lungs. These different parts of the body quietly carry out their own roles. If the heart tries to do more than its assigned role, the overall health of the body will be jeopardized.

When God gave people different roles to perform, God also gave people needed faith to carry out their roles. When people faithfully carry out their roles, even when their roles seem insignificant, less desirable, or overwhelming, their church as a body of Christ will be strengthene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목요일·Thu
15

2022 September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온다

All Authority Comes from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 권세에 굴복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며,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새502장(통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묵상·**로마서 13:1-7**

통독·로마서 13장

- 1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 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께서 정하신 바라
-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 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 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 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 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 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Reading Insight <>>

All authorities come from God and people must submit to them. Also, love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As people of faith, we must put aside dark deeds and live our life in expectation of Christ's return, putting on the shining armor of light.

7 Hymn502 Heralds of Light, Be Swift

Meditation • Romans 13:1–7

Reading Plan · Romans 13

- 1 Let every person be subjec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 and those that exist have been instituted by God.
- ² Therefore whoever resists the authorities resists what God has appointed, and those who resist will incur judgment.
- 3 For rulers are not a terror to good conduct, but to bad. Would you have no fear of the one who is in authority? Then do what is good, and you will receive his approval,
- 4 for he is God's servant for your good. But if you do wrong, be afraid, for he does not bear the sword in vain. For he is the servant of God, an avenger who carries out God's wrath on the wrongdoer.
- 5 Therefore one must be in subjection, not only to avoid God's wrath but also for the sake of conscience.
- 6 For because of this you also pay taxes, for the authorities are ministers of God, attending to this very thing.
- **7** Pay to all what is owed to them: taxes to whom taxes are owed, revenue to whom revenue is owed, respect to whom respect is owed, honor to whom honor is ow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진노가 아니라 무엇에 따라 해야 합니까? (5절)

In addition to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for not submitting, why should one submit to the authorities? (v. 5)

당신이 권세자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진노를 당할 일은 무엇인가요? What are some of the things you have done that are worthy of recognition from those with authority and what are the things that may deserve punishment?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덕(PA)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 박성순(P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A Reason for Bearing the Sword

성도는 하늘의 시민이지만, 또한 이 땅의 국민으로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서 주신 것이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땅의 권세자들에 대한 무조건의 복종은 아닙니다. 4절에 땅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가 순종하는 권세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일에 칭찬하고, 악한 일에 징벌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에 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비본질적 인 일들로 권세자들과 대립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성도들에게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hristian believers are citizens of heaven who also live as citizens of this world. For this reason, believers must think about how to manage their relationships with those who have authority in this world. Paul tells the believers that all authorities come from God and, for this reason, they should submit to them. However, he does not mean that everyone should submit to all authorities unconditionally. In verse 4, the ones in authority are referred to as those who are "God's servants." This means that the authorities to whom believers should submit are those who are co-workers with God. It is to these people that God, who rewards those who do good and punishes those who do evil, gave the sword. For this reason, it is not wise to rebel against those in authority for matters not essential to Christian faith.

Although we are to submit to those with authority in this world,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the one with ultimate authority for believers is God. So, we, as people of faith, should live our life obeying God's authority and witnessing that authority to the world. At the same time, we should also recognize that God uses those with authority in this world to carry out God's work and, for this reason, be willing to submit to their authorit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日本 16 日本

2022 September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Live or Die for the Lor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하며,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 니다.

♬ 새433장(통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묵상·로마서 14:1-10

통독·로마서 14장

-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막라
-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 셨음이라
- 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 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 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 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하느니라
- 7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 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Reading Insight

Christ is the Lord of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As such, whether we live or die, we should do it for the Lord. Those who serve Christ must strive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the Lord and also that receives human approval. Rather than passing judgment on one another, everyon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do what leads to peace and to mutual edification.

Hymn433 Nearer, Still Nearer

Meditation • Romans 14:1-10

Reading Plan · Romans 14

- ¹ As for the one who is weak in faith, welcome him, but not to quarrel over opinions.
- ² One person believes he may eat anything, while the weak person eats only vegetables.
- ³ Let not the one who eats despise the one who abstains, and let not the one who abstains pass judgment on the one who eats, for God has welcomed him.
- 4 Who are you to pass judgment on the servant of another? It is before his own master that he stands or falls. And he will be upheld, for the Lord is able to make him stand.
- ⁵ One person esteems one day as better than another, while another esteems all days alike. Each one should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
- 6 The one who observes the day, observes it in honor of the Lord. The one who eats, eats in honor of the Lord, since he gives thanks to God, while the one who abstains, abstains in honor of the Lord and gives thanks to God.
- **7**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 8 For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then, whether we live or whether we die, we are the Lord's.
- 9 For to this end Christ died and lived again, that he might be Lord both of the dead and of the living.
- 10 Why do you pass judgment on your brother? Or you, why do you despise your brother?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v. 10)

진정한 우리의 판단자는 누구십니까? (10절) Who is our ultimate judge?

당신이 비판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왜 비판하십니까?

Is there someone that you are tempted to judge? Why do you want to judge the person?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필라등대교회, 조병우(PA)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고요한(R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남의 하인을 비판함 Judging Someone's Servant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일 중에는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 수도 있기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와는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로 먹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기를 먹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비판했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이들이 부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다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질문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하나 님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인을 세우실 때에 각자에 게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 하 인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비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며 자신의 믿음을 우월하다고 서로 업신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비판할 것이 있더라도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를 원하십니다(19절).

Even though we believe in the same Jesus, we can have faith with different understanding. One thing that caused controversy in the Roman church was the issue of eating meat. While some believers did not eat meat that was purchased in the market because they feared that the meat was used in idol worship, other believers felt that it is okay to eat meat with a grateful heart because it was given to them by God. This difference in their understanding caused those who ate meat to criticize those who didn't as being weak in their faith, and those who did not eat meat judged those who ate meat as being defiled in their faith.

It is to these people who are quarreling with one another that Paul asks, "Who are you to judge someone else's servant?" All believers are those who have God as their master and serve God as servants. And when God calls each servant, God calls them according to their faith. So, when we judge other servants, we may be judging God who called them as God's servants. In our churches, we, too, have people with different understandings of faith. God doesn't want people to judge or mistreat one another while thinking that one's faith is better than that of others. Instead, God wants everyone to make every effort to do what leads to peace and to mutual edification (v. 19).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토요일·Sat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A Minister of Christ Jes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며, 성도들에게 힘써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새315장(통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묵상·**로마서 15**:1-7 통독·로마서 15장

-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 2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핰지니라
-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 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같으니라
- 4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 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 5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 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Reading Insight

As believers, we should live our life seeking good and mutual edification, giving glory to God. Paul is preparing himself to go and preach the Gospel to the Gentiles and he asks the saints to pray to God for him.

7 Hymn315 My Jesus, I Love Thee

Meditation • Romans 15:1–7

Reading Plan · Romans 15

- 1 We who are strong have an obligation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 ² Let each of us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build him up.
- ³ For Christ did not please himself, but as it is written, "The reproaches of those who reproached you fell on me."
- 4 For whatever was written in former days was written for our instruction, that through endurance and through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we might have hope.
- ⁵ May the God of endurance and encouragement grant you to live in such harmony with one another, in accord with Christ Jesus,
- 6 that together you may with one voice glorify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 **7** Therefore welcome one another as Christ has welcomed you, for the glory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2절)

How should we treat our neighbors? (v. 2)

당신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Do you have someone in your life that you find it difficult to accept? What can you do to be more accepting of that person?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그린빌한인연합감리교회, 신규석(SC)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배연택(S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누 군가를 사랑해도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하고 짝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과 가까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남들을 거절하며 배척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거절당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안에서 가능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 자에게 부인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 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른 성격과 생각, 습관을 가진 이를 받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서로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To be rejected by another person is a painful experience. Because of this fear of rejection, some people do not confess their love but maintain a one-sided love. Those who have experienced the pain of rejection may become reluctant to be around other people. However, Paul teaches us to "accept one another." Church should be a place where people are accepted. Even those who are rejected in other places should find acceptance in the church. The reason why this is possible in church is because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Jesus is someone who was rejected by the world. He experienced denial and betrayal even from his own disciples. Many people not only rejected him, they also killed him. However, Jesus did not deny those who rejected him but accepted them by dying for them on the cross. People of faith are those who accept one another. Yes, accepting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ourselves in thoughts, ethos, and habits is never easy. But we must continue the effort, always remembering that, by doing so, we honor the Lord who accepted u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8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 경 본 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왕태건 목사(Hackensack UMC, NJ)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요? 권력? 경제력? 인적 파워?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삶의 '패턴' 혹은 '리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 중 마음에 남아 있는 한 권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성 프란시스〉 전기 소설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최후의 유혹〉, 〈그리스인 조르바〉 등으로 알려진 소설가입니다.

〈성 프란시스〉전기 소설은 인간의 고뇌를 깊이 있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깊이 생각하게 만든 장면은 프란시스가 후계자를 세울 때입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간 프란시스가 마침내 성흔(예수님의 못 자국과 창 자국의 흔적)을 받는 장면은 책의 클라이 막스입니다. 당시 책을 읽으며 저는 영적인 강렬함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신비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늙은 프란시스의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계자는 적어도 영적으로 큰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란시스의 뒤를 이을 만큼 영적 역량이 커야겠지요. 하지만 책은 그런 기대를 꺾습니다. 후계자로 선택된 제자는 영적이기보다는 단체를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시스의 때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치 '무리'와 같이 신앙의 삶을 실천하며 따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우려와는 달리 이 후계자에 의해 무리들은 오히려 크고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프란시스의 큰 영성이 단체와 규율이라는 그릇에 담겨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성이 보이는 그릇에 담기는 것이 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과 규율은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패턴으로 제시되어 집니다. 저는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사람들이 그 영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신앙 행위의 패턴'으로 제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도전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교회의 교우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 '신앙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을 교우들의 헌신을 통해 보곤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묵묵한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이곳저곳 아니 모든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헌신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패턴'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라 믿습니다.

월요일·Mon

19

2022 September

문안과 권면

Greetings and Encouragemen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은 교회에게 자신의 부탁을 말하며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살피며 떠나기 를 권면하며,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마지막 인사를 합 니다.

♬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묵상·로마서 16:1-10, 16

통독·로마서 16장

-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처하노니
-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 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 4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 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 느니라
- 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 6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 8또주안에서 내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 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Reading Insight ·····

Apostle Paul shared greetings with the church along with his encouragement. He said the last goodbye by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and asking the church to discern and leave those who bring disputes and troubles against Christ's teachings.

7 Hymn312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Meditation • Romans 16:1-10, 16

Reading Plan · Romans 16

- ¹ I commend to you our sister Phoebe, a servant of the church at Cenchreae,
- ² that you may welcome her in the Lord in a way worthy of the saints, and help her in whatever she may need from you, for she has been a patron of many and of myself as well.
- 3 Greet Prisca and Aquila, my fellow workers in Christ Jesus.
- 4 who risked their necks for my life, to whom not only I give thanks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give thanks as well.
- ⁵ Greet also the church in their house. Greet my beloved Epaenetus, who was the first convert to Christ in Asia.
- ⁶ Greet Mary, who has worked hard for you.
- 7 Greet Andronicus and Junia, my kinsmen and my fellow prisoners. They are well known to the apostles, and they were in Christ before me.
- 8 Greet Ampliatus, my beloved in the Lord.
- 9 Greet Urbanus, our fellow worker in Christ, and my beloved Stachys.
- ¹⁰ Greet Apelles, who is approved in Christ. Greet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Aristobulus.
- **16**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All the churches of Christ greet you.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놓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3-4절)

What are the names of those who risked their lives for the apostle Paul? (vv. 3-4)

당신은 그리스도안에서 어떤 사람 으로 소개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십 니까?

How do you think you (who are in Jesus Christ) would be introduced to others?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 나웅철(SC) 내쉬빌한인교회, 강희준(TN)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Those Who Are in Christ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준 뵈뵈도 있었고, 자기들의 목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교회의 모임을 위해 내놓은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소개할 때에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롯하여 교회에 헌신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안에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한 헌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받고 계십니까?

In our passage, Apostle Paul introduced numerous people and asked the church to greet and welcome them. Those who were introduced by Paul were people who were dedicated to God's church. Among them was Phoebe who protected and took care of other Christians. There were Priscilla and Aquila who risked their lives for the church and Paul. There were people who offered their houses for church meetings. There were so many others who were totally dedicated for the sake of the church.

If you pay attention to the names of the people whom Apostle Paul introduced here, they are from all over. They did not know each other since they were from different regions and towns. However, the one common thing for everyone was "being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Paul repeatedly mentioned that all these people are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It was possible for them to sacrifice everything and even to risk their own lives for the church and for Apostle Paul only because they were in Jesus Christ. When they were certain that they were nothing but in Jesus Christ, they could take care of each other genuinely and risked their own lives to serve and protect other Christians. They knew when they served and loved others in Jesus Christ, it meant to serve and love Jesus Christ. How do people introduce you to others? Do they know you are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ayer \square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ক্} ক্রপ্র-Tue

2022 September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God Who Is the Comfort for 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고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자도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야 합니다.

♬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묵상・고린도후서 1:3-11

통독・고린도후서 1-2장

-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 4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 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 6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 가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 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 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 여 삼소망까지 끊어지고
- 9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 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Reading Insight

We look up to and rely on God who comforts us in the midst of troubles and trials. God strengthens us in Jesus Christ and sent the Holy Spirit to secure us. We are called to forgive even those who give us concerns and worries, so we can share the fragrance of Jesus Christ.

7 Hymn380 Savior, More than Life to Me

Meditation • 2 Corinthians 1:3–11

Reading Plan • 2 Corinthians 1-2

- 3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God of all comfort.
- 4 who comforts us in all our affliction, so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affliction,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 **5** For as we share abundantly in Christ's sufferings, so through Christ we share abundantly in comfort too.
- 6 If we are afflicted, it is for your comfort and salvation; and if we are comforted, it is for your comfort, which you experience when you patiently endure the same sufferings that we suffer
- **7** Our hope for you is unshaken, for we know that as you share in our sufferings, you will also share in our comfort.
- 8 For we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brothers, of the affliction we experienced in Asia. For we were so utterly burdened beyond our strength that we despaired of life itself.
- 9 Indeed, we felt that we had received the sentence of death. But that was to make us rely not on ourselves but on God who raises the dead.
- 10 He delivered us from such a deadly peril, and he will deliver us. On him we have set our hope that he will deliver us again.
- 11 You also must help us by prayer, so that many will give thanks on our behalf for the blessing granted us through the prayers of man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 하고 있습니까? (3절) How does Paul describe God? (v. 3)

당신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How do you comfort someone who is troubled?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 조낙훈(TX)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박광배(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

Suffering as If Receiving the Death Sentence

우리 교회에 암으로 고생을 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암 치료를 하시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지만 오랜 치료 기간 동안 주일예배를 한 번만 빠지셨고,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닿는 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성도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한 암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료를 받는 분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말은 먼저 암 치료를 받은 분의 말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병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일들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이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 다. 우리가 받은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 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There is a congregant in our church who struggles with cancer. When she received cancer treatments, she had no strength due to lack of appetite and she lost her hair. Still she only missed one Sunday worship in her long treatment period. She even continued her commitment to serve in assigned roles in our church. Sometime later there was another congregant who was diagnosed with cancer. He also received cancer treatment. The true comforting and encouraging words for the second cancer patient was from the first cancer patient. Both experienced amazing comfort from God because of their illnesses.

Paul experienced countless sufferings due to his faith in Jesus Christ. Paul expressed that his suffering was like receiving the death sentence. Paul concluded however that his suffering brought him to the realization that he was invited to rely on God only who raised the dead, not himself. We all experienced life draining sufferings and endured moments when we felt like we were about to die. We can learn from Paul's example that we are invited likewise to rely only on God who blesses us to experience His life giving power and salvific might with which God raised the dead. Furthermore, our extreme suffering allows us to be mature to comfort those who are suffering around us. We know people who have so much suffering, pain and hurt. We are called to be comfort for them and channels to invite them to rely only on God who is able to raise the dea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 AB일·Wed 21

2022 September

영의 직분,

The Ministry of the Spirit, the Ministry of the Righteousnes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분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의의 직분으로 영광이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에겐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세488장(통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묵상·고린도후서 3:1-5

통독·고린도후서 3장

-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 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 4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Reading Insight

God who made us letters of Christ makes us servants of the new covenant, so that the ministry of righteousness abounds in glory. Because we have this hope, we can come to the glory of the Lord with boldness.

7 Hymn488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Meditation • 2 Corinthians 3:1-5

Reading Plan • 2 Corinthians 3

- ¹ Are we beginning to commend ourselves again? Or do we need, as some do, letters of recommendation to you, or from you?
- ² You yourselves are our letter of recommendation, written on our hearts, to be known and read by all.
- 3 And you show that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delivered by us, written not with ink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not on tablets of stone but on tablets of human hearts.
- 4 Such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through Christ toward God.
- ⁵ Not that we are sufficient in ourselves to claim anything as coming from us, but our sufficiency is from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누구의 편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쓰여졌다고 합니까?(3장) What is the letter Paul is comparing to the Corinthians? And what is it written with? (v. 3)

당신의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 니까?

What manifestation of you is serving as a letter that reveals Christ?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TX) 동산연합감리교회, 유화청(TX)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편지 The Letter from Christ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증명하는 추천서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인들은 단순히 바울의 사역을 증거하는 추천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였 습니다. 고린도교인들은 더 이상 편지를 받은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의 삶을 살아가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편지는 수많은 세대를 흘러 현재의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Paul compares the Corinthians to a letter. A letter contains a message. Paul says the Corinthians are like a letter of recommendation that proves Paul's ministry. Paul's ministry is revealed through them. The Apostle Paul not only said that the Corinthians were "our letter" (v. 2) but also said,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delivered by us" (v. 3).

The Corinthians were not simply letters of recommendation that testified to Paul's ministry, but letters containing the message of Jesus Christ. The Corinthians were no longer the recipients of the letter, but had to live the life of a letter that contained the message of Jesus Christ themselves.

The letters of Jesus passed through countless generations were also passed on to the present Christian. Now Jesus wants to convey the message of Jesus Christ to people through us. Jesus' letters were not written with ink, but with the Spirit of God. It should be a letter that fully conveys the message of Jesus Christ by engraving the words of the Holy Spirit on the board and living by those word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고난과 영광

Suffering and Glor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 이 우리 안에 있으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대 앞에 드러남을 알아야 합니다.

√ 세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묵상·고린도후서 4:7-15 통독·고린도후서 4:1-5:10

- 7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 이라
- 8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 9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 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 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 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 려 함이라
-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 에서 역사하느니라
- 13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한말하노라
-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 15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Reading Insight

Because the eternal life of Jesus Christ works in us, we are not discouraged with any persecution and are not struck down by any hardship. We totally believe that God who raised Jesus Christ from the dead will raise us up from any deadly trials. Also we believe that we will be judged and revealed before God according to what we have decided is right and wrong in this life.

Hymn357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Meditation • 2 Corinthians 4:7–15 Reading Plan • 2 Corinthians 4:1–5:10

- 7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e surpassing power belongs to God and not to us.
- 8 We are afflicted in every way,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driven to despair;
- 9 persecuted, but not forsaken;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 10 always carrying in the body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may also be manifested in our bodies.
- 11 For we who live are always being given over to death for Jesus' sake, so that the life of Jesus also may be manifested in our mortal flesh.
- 12 So death is at work in us, but life in you.
- 13 Since we have the same spirit of faith according to what has been written, "I believed, and so I spoke," we also believe, and so we also speak,
- 14 knowing that he who raised the Lord Jesus will raise us also with Jesus and bring us with you into his presence.
- 15 For it is all for your sake, so that as grace extends to more and more people it may increase thanksgiving, to the glory of God

말씀 속으로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 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11절)

What is the reason that those who are alive are being given over to death for Jesus' sake? (v. 11)

당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How are you a witness of God's strength with your own life?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러벅연합감리교회, 김다니엘(TX)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 유양진(TX)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하나님

God Who Put Treasure in Jars of Clay

상품의 그릇은 그것을 담는 용기(容器)에 어울리게 포장하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보석과 같은 귀금속은 밝은 조명 속에, 가장 안전한 용기에 담겨져 전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를 가장 볼품없고 연약한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존재.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연약 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 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For a container to be wrapped appropriately depends on what it is carrying. For example, jewelry like diamonds will be spotlighted with extra light and kept in the safest container. However, God did not do this. God put the most precious gift in unattractive and fragile jars of clay. The most precious gift (diamond) is Jesus Christ and jars of clay are Christians. The reason God chose to do this is to show that power and might are not within the control of human beings but only God. Sometimes people think they have unlimited power and capability. They can exult themselves into thinking that they can do anything. Human beings regard themselves as the ones who rule over the whole universe and the ones who are mighty and great.

However God wants to declare that the power of true salvation is in God alone. Human beings are merely jars of clay which could not protect themselves from being broken into pieces. We are worthless and weak outside of God's help. However, God gave us the special authority and power to become children of God and heirs of eternal heaven. This is all possible only because of Jesus Christ who died and rose for u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3

2022 September

성도의 삶

The Life of a Christi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받아야 합니 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불법에서 떠나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 새214장(통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묵상·고린도후서 5:11-19

통독·고린도후서 5:11-7:1

- 11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 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사람이 죽은 것이라
-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이라
-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 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We are called to live the reconciled life with God, the Creator, as we become new creatures in Jesus Christ. We need to receive salvation and grace from God who is merciful and gracious. We are the temple of God who are called to be set apart from lawlessness and become the light carrier. This is the Word of God the Almiahtv.

7 Hymn214 Jesus, My Lord to Thee I Cry

Meditation • 2 Corinthians 5:11–19 Reading Plan • 2 Corinthians 5:11–7:1

- 11 Therefore, knowing the fear of the Lord, we persuade others. But what we are is known to God, and I hope it is known also to your conscience.
- 12 We are not commending ourselves to you again but giving you cause to boast about us, so that you may be able to answer those who boast about outward appearance and not about what is in the heart.
- 13 For if we are beside ourselves, it is for God; if we are in our right mind, it is for you.
- 14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because we have concluded this: that one has died for all, therefore all have died;
- 15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might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for their sake died and was raised.
- 16 From now on, therefore, we regard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Even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we regard him thus no longer.
-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 18 All this is from God, who through Christ reconciled us to himself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 19 that is, in Christ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not counting their trespasses against them, and entrusting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Why did Jesus die for the sake of everyone in this world? (v. 15)

내가 지나 보내야 할 이전 것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kind of things do you need to leave behind and discard as worthless?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배혁(TX) 성루가연합감리교회, 임찬순(TX)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운동선수 코치들이 가르치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운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해서 잘못된 운동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던 잘못된 운동 자세를 버려야 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는데 옛 자세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과거의 죄된 습관들을 벗어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그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 버립니다. 배설물을 소중하다고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가치 없음을 깨닫고 버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주님 없는 이전의 삶을 지나 보내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The ones with whom professional athletic coaches have a hard time are not novices but those who taught themselves to play sports and have developed incorrect postures and habits. Since it is not easy to get rid of old postures and habits in certain sports, it takes much longer to remove the old and wrong ways and re-learn the new and correct postures and habits.

Major stumbling blocks for a Christian to become a new creature whom God wants to be are the old habits of sins. The key secret to make a Christian into a new creature is in Jesus Christ. If we want to be in Jesus Christ, we have to get rid of all old habits. Apostle Paul shared that he regarded everything before as feces after he believed in Jesus Christ. We do not keep and cherish feces. We know feces are worthless. When we realize that life without Jesus Christ is feces (worthless), then we can reside in Jesus Christ and become new creatures. Even though all others in the world think some things are very significant and valuable, if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being in Jesus Christ, then they are worthless for Christians. Only those who can discard and leave behind the life before believing Jesus Christ can live a new life in Him.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ayer \square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RSI-Sat

2022 Sentember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Being Concerned according to God's Wil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난을 당할 때 디도가 옴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십니다.

♬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묵상·고린도후서 7:5-11

통독·고린도후서 7:2-16

-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 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 7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하였느니라
- 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 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 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 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Reading Insight <>>

When Apostle Paul experienced severe trials in Macedonia, he received great comfort and joy by the visit of Titus. When we are concerned according to God's will, it will bring repentance which will lead to salvation.

Hymn300 Just When I Disheartened

Meditation • 2 Corinthians 7:5–11

Reading Plan • 2 Corinthians 7:2–16

- ⁵ For even when we came into Macedonia, our bodies had no rest, but we were afflicted at every turn--fighting without and fear within.
- 6 But God, who comforts the downcast, comforted us by the coming of Titus,
- 7 and not only by his coming but also by the comfort with which he was comforted by you, as he told us of your longing, your mourning, your zeal for me, so that I rejoiced still more.
- 8 For even if I made you grieve with my letter, I do not regret it-though I did regret it, for I see that that letter grieved you, though only for a while.
- ⁹ As it is, I rejoice, not because you were grieved, but because you were grieved into repenting. For you felt a godly grief, so that you suffered no loss through us.
- 10 For godly grief produces a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without regret, whereas worldly grief produces death.
- 11 For see what earnestness this godly grief has produced in you, but also what eagerness to clear yourselves, what indignation, what fear, what longing, what zeal, what punishment! At every point you have proved yourselves innocent in the matt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9-10절) If we are concerned according to God's will, what will this lead us to? (vv. 9-10)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근심 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무 엇입니까?

What kinds of concerns has God given to you? Can you identify them?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성베드로연합감리교회 한어부, 김데이빗(TX) 세상의 빛 연합감리교회, 김형남(TX)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Being Concerned in God's Will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 놓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받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였습니다.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 중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지 못함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근심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깨닫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근심해야 할 사람이 근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하나님은 근심하지 않는 이들을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더라도 성도는 하나 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데 민감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해 민감함으로 그 근 심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안심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Have you ever regretted something after the fact? Paul did. He regretted sending a letter to the Corinthian church to admonish their wrong-doings. Paul was concerned that his letter would bring discouragement and negative consequences. However his letter actually made the Corinthian church repent their sins.

We all are concerned and worried. There are concerns that will help to fulfill the salvation and those that will lead to death. The concerns of the world are about not getting what you desire. The worldly concerns might be resolved but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God and the final consequence of those kinds of concerns are death. There are concerns according to God's will. These concerns are about whether I live out God's will fully or not. If we are concerned according to God's will, this will help us to fulfill the blessings of God's salvation. Sometimes there are people who should be concerned but are not because they do not realize their sin and just relax and become complacent. God certainly is concerned when He sees this kind of people.

When so many people become numb and immune to the seriousness of sins in this world, Christians are called to be sensitive to being concerned according to God's will. When we are diligently concerned about our sin, we can repent our sins without failing. When we are concerned according to God's will, we can fulfill the promise of salvation and please our Go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5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SEPTEMBER

화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경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과 분노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화부터 내고 온갖 모욕적인 언어와 극언을 퍼붓습니다. 언제나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극우나 극좌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우리 사회와 나라, 민족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 언제 부터인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민족의 화해를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민족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이렇게 오래 미루시는지 궁금 하였습니다. 그저 통일만 이루어주시는 것이라면 벌써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화해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갔다가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신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가서 북한 국경지대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화해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화해가 진정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화해가 없는 통일은 더 큰 분열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해가 없는 전쟁의 끔찍함을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념관에 세워진 그의 연설을 기록한 돌판 중 두 개가 전쟁에 대하여 언급한 글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모든 전쟁의 시작이 끝나는 것이다!" "나는 전쟁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쟁터를 보았습니다. 나는 부상자의 몸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를 보았습니다. 나는 진흙 속에 묻힌 시체를 보았습니다. 나는 파괴된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넋나간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많은 어머니들과 아내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쟁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화해가 어려운데 민족의 화해. 가능할까요?

화해 사역은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승리로 전쟁이 마쳐진 후 남군을 전범 처리하지 않고 진정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오히려 링컨 대통령에 대하여 반발하는 분위기가 강하였고 탄핵이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함으로 남북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1963년 마틴 루터 킹목사는 "I have a Dream!"이란 유명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 언젠가는 나의 네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역시 암살당하였고 미국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화해 사역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8-19)."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부단히 화해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월요일 · Mon

26

2022 September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

A Willing and Joyous Offer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였으며 다른 이들을 사랑함을 증명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디도를 보내며,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 새215장(통354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묵상·고린도후서 8:7-15

통독·고린도후서 8-9장

-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 하게 할지니라
-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 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 이로라
-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 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 10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 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 11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 12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 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 14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 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 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 15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Reading Insight

The rich generosity of the Macedonian church supplied what was needed for Christians in Jerusalem who were very poor. This showed their love for their fellow Christians. Paul sent Titus to administer the collection of offerings. Paul acknowledged that their generosity was evidence of how they are honoring God and he gave thanks to God for their generous gifts.

Hymn215 All for Jesus

Meditation • 2 Corinthians 8:7–15

Reading Plan • 2 Corinthians 8-9

- **7** But as you excel in everything--in faith, in speech, in knowledge, in all earnestness, and in our love for you--see that you excel in this act of grace also.
- 8 I say this not as a command, but to prove by the earnestness of others that your love also is genuine.
- **9**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by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 10 And in this matter I give my judgment: this benefits you, who a year ago started not only to do this work but also to desire to do it.
- 11 So now finish doing it as well, so that your readiness in desiring it may be matched by your completing it out of what you have.
- 12 For if the readiness is there, it is acceptable according to what a person has, not according to what he does not have.
- 13 For I do not mean that others should be eased and you burdened, but that as a matter of fairness
- 14 your abundance at the present time should supply their need, so that their abundance may supply your need, that there may be fairness.
- 15 As it is written, "Whoever gathered much had nothing left over, and whoever gathered little had no lack."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 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Why did Jesus become poor while he was rich? (v. 9)

나에게 평균케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라고 하십니까?

What do I have to be an equalizer? How can we share?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ver for Churches & Pastors

웨슬리연합감리교회, 주요한(TX)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 이진희(TX)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평균케 하려 함이라 To Equalize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일 분에 11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를 통틀어보면 그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균케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기근에 있는 예루살 렘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를 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윤택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성도는 평균케 하는 사람입니다. 곧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건강, 물질, 지식, 재능 등을 주신 것도 다른 사람들과 평균케 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According to Oxfam, the international aid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reported in 2021 that 11 people die every minute from hunger and malnutrition. The sad fact is people die of starvation not because of lack of food but because of how food is unevenly distributed geographically.

God wants fair distribution and Paul exerted himself to work on it. When the church in Jerusalem was experiencing hardships, Macedonian churches made generous contributions to assist the people of Jerusalem. Proverbs 11:25 says, "Whoever brings blessing will be enriched, and one who waters will himself be watered."

This teaches us that when we nurture others, God will also nurture us. A believer is an equalizer, someone who can share what she has with others. God has given us not only financial means, but also time, health, resources, knowledge, talent, etc. which are to be shared, so that together we can experience God's abundanc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ইএএ·Tue

2022 September

자기를 비교

Paul Compar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께 복종하라고 권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임을 말해 줍니다.

묵상·고린도후서 10:10-18

통독·고린도후서 10장

- 10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 11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 12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 13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 16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 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 17자랑하는자는주안에서자랑할지니라
- 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Reading Insight

Paul exhorts those who walk according to the flesh to take every thought captive and submit it to Christ. The one who is approved is not the self righteousness but is the one who is commended by God.

☐ Hymn420 Take Time to Be Holy

Meditation • 2 Corinthians 10:10-18

Reading Plan • 2 Corinthians 10

- ¹⁰ For they say, "His letters are weighty and strong, but his bodily presence is weak, and his speech of no account."
- 11 Let such a person understand that what we say by letter when absent, we do when present.
- 12 Not that we dare to classify or compare ourselves with some of those who are commending themselves. But when they measure themselves by one another and compare themselves with one another, they are without understanding.
- 13 But we will not boast beyond limits, but will boast only with regard to the area of influence God assigned to us, to reach even to you.
- 14 For we are not overextending ourselves, as though we did not reach you. For we were the first to come all the way to you with the gospel of Christ.
- 15 We do not boast beyond limit in the labors of others. But our hope is that as your faith increases, our area of influence among you may be greatly enlarged,
- 16 so that we may preach the gospel in lands beyond you, without boasting of work already done in another's area of influence.
- 17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 **18** For it is not the one who commends himself who is approved, but the one whom the Lord commend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 해야 합니까? (17절) In whom should we boast? (v. 17)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칭찬하 실만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What are the areas that are commendable before the Lord?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 이병설(TX)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권성철(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The One Who Gets It Right

남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잘못이 없음에도 공격을 받는다면 억울함이 더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력, 업적 등을 내세우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며 공격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대단한 존재라며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오늘날 의사들이 자신들을 광고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의사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로 의사의 본연의 소명에 어긋나는 것이고, 광고보다는 의술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을 때에 타당한 것이고, 그 누구보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It is very painful when we are criticized by others. What's more, if you are attacked even though you are not at fault you would be outraged. False teachers at the Corinthian church criticized Paul. By boasting about their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they disparaged and demeaned Paul, who planted the church in Corinth, saying he was not a true apostle. They elevated themselves above all people and led the believers astray. But, Paul said, it is not the ones who commends himself who is approved, but the one whom the Lord commends (v. 18).

We have a retired doctor in our church. He lamented on seeing many advertisements of medical practices of various specialities. He says, "In the old days, doctors didn't advertise in newspapers. Advertising is a promotion to make money, and it goes against the Hippocratic Oath." He believes that doctors should earn recognition through how they practice rather than from the advertisement.

Those who are righteous do not look for self-accolades. Any approval should come from others and also it should come from the Lord. Our walk of faith should be worthy of God's commendation not people's. Even if you don't find the world's approval, you can be fully satisfied when you hear God's commendation of your faithful work.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PARSI - Wed 28

2022 September

바울의 부득불 자랑

Qualified Boast of Pau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 사도이며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조심하며 또 여러위험과 고통당함을 말하며 얼마나 교회를 염려하는지 부득불 말합니다.

♬ 새314장(통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묵상·고린도후서 11:7-15

통독·고린도후서 11장

-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 9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 11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 나님이 아시느니라
- 12 나는 내가 해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 13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 14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 사로 가장하나니
- 15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Reading Insight «

Paul underscores that he is a true apostle and worker of Christ. He reminds the believers of dangers and sufferings he had undergone for the sake of the gospel and the church. He tells them that he is mindful to always be humble and enduring.

Hymn314 More Love to Thee, O Christ

Meditation • 2 Corinthians 11:7–15

Reading Plan • 2 Corinthians 11

- ⁷ Or did I commit a sin in humbling myself so that you might be exalted, because I preached God's gospel to you free of charge?
- 8 I robbed other churches by accepting support from them in order to serve you.
- ⁹ And when I was with you and was in need, I did not burden anyone, for the brothers who came from Macedonia supplied my need. So I refrained and will refrain from burdening you in any way.
- 10 As the truth of Christ is in me, this boasting of mine will not be silenced in the regions of Achaia.
- 11 And why? Because I do not love you? God knows I do!
- 12 And what I do I will continue to do, in order to undermine the claim of those who would like to claim that in their boasted mission they work on the same terms as we do.
- **13** For such men are false apostles, deceitful workmen, disguising themselves as apostles of Christ.
- 14 And no wonder, for even Satan disguises himself as an angel of light.
- 15 So it is no surprise if his servants, also, disguise themselves as servants of righteousness. Their end will correspond to their deed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큰 사도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Paul says he is the great apostle, but what did the people who disturbed the Corinth church say about him? (v. 13)

교회에서 수고한 일을 사람들이 인 정하지 않아 속상한 적이 있으십니 까? 이를 누가 아십니까? Have you been upset because people did not recognize your hard work at church? But who knows about it?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용석(TX) 가나연합감리교회, 박주섭(V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God Knows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도리어 다른 이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들어온 자칭 큰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에 의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했다며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이런 비방을 듣는 바울은 억울하기도 하고,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칫 거짓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기에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은 고린도교인들을 높이려고 스스로를 낮추었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역의 비용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무수한 고난을 당하였고, 그는 아직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날마다 눌렸다고 말합니다(28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이토록 헌신했는데, 그들은 거짓에 속아 도리어 바울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한 사역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왜곡하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을 당할 때에 도리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마 5:11-12).

How would you feel if you received harsh criticism after you had worked hard for the church? Paul suffers from the lies of those who falsely claimed to be the great apostles in the Corinthian church. They slandered Paul by saying he was not an apostle and that he used the church members for his own gain. Hearing this slander, Paul confronts those lies and defends himself for the sak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so that his teaching would not be misunderstood and falsified.

Paul writes that he humbled himself in order to honor the Corinthians, and he supports his own ministry so as not to be a burden to them and not to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gospel. Paul said that he suffered countless times to preach Christ, and he faces daily the pressure of his concern for all the churches (v. 28). It is sad to see that Paul's devotion to the Corinthians wasn't acknowledged but instead that he was mocked by the Corinthians believers who were deceived by false teachers.

Sometimes, our ministries can be a target of slander. Good intentions get distorted and it brings hurt feelings. But even if others can't see, God knows everything. When we are reviled, persecuted, and falsified because of the Lord, Jesus said that the reward in heaven is great (Matt 5:11–12).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9

2022 September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은 하늘에 이끌려 가서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로 인한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지고, 그 은혜 가 족함을 고백합니다.

♬ 새299장(통418장) 하나님 사랑은

묵상·고린도후서 12:1-10

통독·고린도후서 12장

-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 를 말하리라
-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 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 느니라)
-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 7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8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 구하였더니
- 9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이라

Reading Insight «

Paul tells about visions and revelations that he saw when he was caught up in the third heaven. Also, he confesses that his weakness which is described as "the thorn in the flesh" is made perfect by the power of God, and His grace is sufficient.

Hymn299 O Love of God Most Full

Meditation • 2 Corinthians 12:1–10

Reading Plan • 2 Corinthians 12

- ¹ I must go on boasting. Though there is nothing to be gained by it, I will go on to visions and revelations of the Lord.
- ² I know a man in Christ who fourteen years ago was caught up to the third heaven--whether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I do not know, God knows.
- 3 And I know that this man was caught up into paradise--whether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I do not know, God knows--
- 4 and he heard things that cannot be told, which man may not utter.
- ⁵ On behalf of this man I will boast, but on my own behalf I will not boast, except of my weaknesses.
- 6 Though if I should wish to boast, I would not be a fool, for I would be speaking the truth. But I refrain from it, so that no one may think more of me than he sees in me or hears from me.
- **7** So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because of the surpassing greatness of the revelations, a thorn was given me in the flesh, a messenger of Satan to harass me, to keep me from becoming conceited.
- 8 Three times I pleaded with the Lord about this, that it should leave me.
- ⁹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of my weaknesses, so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
- 10 For the sake of Christ, then, I am content with weaknesses, insults, hardships, persecutions, and calami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10절) What did Paul take pleasure in for Christ? (v. 10)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 다고 경험하였습니까? 나의 약함 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신 적이 있 습니까?

When did you experience God's sufficient grace? Have you ever regarded your weakness as evidence of God's grace?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권홍(VA) 새빛교회, 김은관(V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가시가 은혜로… Thorns for Grace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약점은 숨기려고 자신의 장점을 더욱 자랑하곤 합니다. 바울에게는 자랑거리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를 다녀오고 계시를 받은 것은 커다란 영적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시가 주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낙심하지도 않았고 이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는 자신의 연약함을 늘 상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로 자만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그것이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시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People are afraid of exposing their vulnerabilities or weaknesses. Therefore, they often boast more about their strengths to hide their weaknesses. Paul had something to boast about, but he also had weaknesses. For him, having been in the third heaven and receiving revelations was a source of great spiritual pride.

But he had a thorn in the flesh, a messenger from Satan. Although he was carrying out the great missions for God, he could not remove the thorn from his body, and he was still in pain from that thorn. But Paul was not discouraged by the thorn, nor did he try to hide it because he knew why God gave him the thorn. The thorn was the reminder of the grace of God, who is present even in his weakness which made him live more humbly.

God humbles us through the weaknesses and pains we want to hide. Our weaknesses make us humble and it enables us to rely on God. Paul said that when he is weak, he is strong. When we trust in the Lord with our weaknesses, we will experience the strength of God. If we are not conceited, our thorn becomes a blessing.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1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30

2022 September

바울의 방문과 문안

Paul's Visit and Greeting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할 것을 말하며, 죄 지은 자들에 대한 경고와 자신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문안을 나눕니다.

♬ 새394장(통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묵상·고린도후서 13:1-9

통독·고린도후서 13장

- 1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 2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 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 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 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 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 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 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 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 6우리가 버림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 7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 9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Reading Insight »

Paul speaks of his third visit and issues final warning against sinners. He exhorts believers to test their faith in Christ. In closing, he gives his greetings and blesses the Corinthian church.

7 Hymn394 Earthly Friends May Prove Untrue

Meditation • 2 Corinthians 13:1-9

Reading Plan • 2 Corinthians 13

- 1 This is the third time I am coming to you. Every charge must be established by the evidence of two or three witnesses.
- ² I warned those who sinned before and all the others, and I warn them now while absent, as I did when present on my second visit, that if I come again I will not spare them--
- ³ since you seek proof that Christ is speaking in me. He is not weak in dealing with you, but is powerful among you.
- ⁴ For he was crucified in weakness, but lives by the power of God. For we also are weak in him, but in dealing with you we will live with him by the power of God.
- 5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Or do you not realize this about yourselves, that Jesus Christ is in you?--unless indeed you fail to meet the test!
- 6 I hope you will find out that we have not failed the test.
- **7** But we pray to God that you may not do wrong--not that we may appear to have met the test, but that you may do what is right, though we may seem to have failed.
- 8 For we cannot do anything against the truth, but only for the truth.
- ⁹ For we are glad when we are weak and you are strong. Your restoration is what we pray fo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까? (5절)

What did Paul tell the Corinthians to test and affirm? (v. 5)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How do you know that you are in the faith of Christ?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성가연합감리교회, 최윤석(VA) 알링턴한인교회, 류영성(V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Examine Your Faith

바울은 편지의 끝부분에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죄지은 자들에게 경고한 것은 그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변화되어, 바울이 방문할 때 서로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At the end of his letter, Paul describes his plans for a third visit to the Corinthian church. He warns that he will not spare those who have sinned earlier or any of the others. Then Paul tells the Corinthians to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v. 5). Paul's warning to the sinners wasn't to punish them, but he wanted them to examine their faith and have transformed faith. It was his desire to greet them with joy when they meet again.

Believing in Jesus means that Christ is in you and that you are living the transformed life that Jesus wants. However, sometimes people who claim to believe in Jesus say and do things that are not aligned with Christ's teachings.

As we believe in Jesus, there are things we should always examine. "Am I in the faith? Is Jesus Christ in me?" Our faith in Jesus does not suffice only with our words. When faith is revealed through our lives, we will know that Christ is in us. May the world see the living and wondrous Jesus through your lif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2022년 9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십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 로마서 2:1-5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 로마서 6:11-18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두 가지 근심 | 고린도후서 7:5-12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 고린도후서 13:5-10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215장(통354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주는 완전합니다

01 여는 질문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내가 한 일로 오해를 받아서 억울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실수한 일은 없습니까? 왜 그러한 오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02 본문이해

로마교회 안에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부도덕한 일들을 보면서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사람은 남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일을 자신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남을 제대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의 근거는 대부분 외적인 것이나, 심증에 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도 달라서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각자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참 12:15)"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고 의로운 것처럼 여겨질 때 도리어 내가 어리석어진 것은 아닌지 염려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자격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이 사람을 판단하실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됨을 정죄하시기 보다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인들이 죄인이었을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도 다른 이들을 정죄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 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도는 남을 판단할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같이 인자함과 용납함과 길이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03 말씀속으로

- 1.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3절)
- 2.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쌓는 것은 어떠한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까? (5절)

04 삶속으로

- 1. 당신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볼 때, 그를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준일이 있습니까?

05 암송구절 로마서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06 자녀와나눔

네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니? 그런데 너에게도 친구의 그 모습이 있지는 않니?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본문 로마서 6:11-18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새350장(통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새407장(통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01 여는 질문

누군가와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싸움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당신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02 본문이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 후에 애양원으로 돌아와 나환자를 돌보며 목회하던 중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 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그 살해범을 양아들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사랑이 하나님을 전하는 원자탄과 같은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체를 만드셨으나 사람 들은 하나님께쓰이는 무기가 아닌, 죄의 도구로 그몸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는 사람의 지체를 악한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불의한 무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강력한 의의 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의 사욕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육신의 사욕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 버리고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버리라고 했습니다(막 9:45-47).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종노릇 하며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폭력을 가하고 죽이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는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미움과 폭력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하며,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이기는 하나님의 무기로 살아야 합니다.

03 말씀속으로

- 1.바울은 성도들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엇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12절)
- 2. 사도바울이 로마의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18절)

04 삶속으로

- 1. 당신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 받기 위해 죽였던 죄의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2. 당신은 당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05 암송구절 로마서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06 자녀와나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는 일은 무엇이 있니?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고린도후서 7:5-12**

두가지근심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새382장(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새368장(통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01 여는 질문

그동안 당신이 한일 중에서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까? 왜 후회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02 본문이해

사람이 살다 보면 한 일에 대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놓고 후회할 때도 있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고 괜히 보냈다고 후회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바울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바울이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근심하였고,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일로 바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근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근심 중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이끕니다.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심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이끕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합니다. 결국 세상 근심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근심해야 할 때에 근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근심할 것이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03 말씀속으로

- 1.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 한 때 후회하였으나, 이제는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9절)
- 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0-11절)

04 삶속으로

- 1.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 다릅니까?
- 2. 최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05 암송구절 고린도후서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06 자녀와나눔

네가 하는 근심은 주로 어떠한 것들이니? 너의 근심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새341장(통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새428장(통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새262장(통196장) 날 구워하신 예수는

01 여는 질문

당신은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어떠한 직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직함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02 본문이해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2절). 이는 바울이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비방하는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된 악을 버리고 변화되어,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음을 보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분열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갈등과 싸움이 사랑과 평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리어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신앙적으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성도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기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18절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내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 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03 말씀속으로

-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절)
- 2.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04 삶속으로

- 1.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2. 당신이 경험한 신앙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까?

05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13: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06 자녀와나눔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니?



You Who Judges!



Love Your God with Your Heart All For Jesus Lord. I Need You

01 Opening Discussion

Have you ever felt the unfairness of being falsely accused by others for something you did not do? Have you ever made the mistake of falsely accusing someone else? Why do you think we make those kinds of mistakes?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were people in the Roman church who loved to judge others. If they saw anyone make any unethical mistakes, they were prompted to make judgments about them. Apostle Paul called them "You who judge" and told them it was inappropriate behavior. First, Paul said that we have no right to judge others because when we judge others, we use the same judgment upon ourselves. Therefore, when we judge others, we condemn ourselves according to Paul.

Another reason for not judging others is that we do not have full capability to judge others. We usually use superficial, obvious, and accessible evidence to judge others which results mostly in assumption or suspicion. Also, everyone uses different standards to judge other people or situations. We usually end up with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subjective conclusions. Therefore, no one can brag that their judgment is objective and absolute.

Proverbs 12:15 says "The way of a fool is right in his own eyes, but a wise man listens to advice." We have to be careful when we assume ourselves to be much more righteous and correct than other people. In fact, we might be much more foolish than others. Most of the time, we might be numb to discern and feel the temptation of sins rather than being sinless.

In conclusion, human beings have no capacity nor right to judge others. Only God can judge human beings. However, God blesses human beings instead of condemns them.

Therefore, Apostle Paul said that it is a sin when we judge others because we despise the power of God's abundant grace when we judge. God was patient, embracing, and merciful to forgive the Roman Christians when they judged others and when they were sinners. Because of God's mercy, the Roman Christians ended up repenting their sins (their judging attitudes). If the Roman Christians continued to judge others after receiving God's forgiving mercy, they would have despised the power of God's abundant grace. Only God can condemn and judge human beings. We as children of God should not condemn others even when there is a reason to judge others. Let us follow the model which God exemplified by showering us with His abundant grace in his enduring patience, mercy, and acceptance.

O3 Into the Word

- 1. Why do we end up condemning ourselves when we judge others? (vv. 1, 3)
- 2. What kind of mindsets would invite the wrath on the day of God's judgment? (v. 5)

04 Into our life

- 1. Who do you often judge and condemn? What are some main reasons?
- 2. Have you ever treated others with mercy and love instead of judging them when they were caught in their wrong doings?

05 Memory Verse Romans 2:1

Therefore you have no excuse, O man, every one of you who judges. For in passing judgment on another you condemn yourself, because you, the judge, practice the very same things.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f there is a kid you do not like, what is the reason? Do you think you might have similar aspects of the person you don't like in your own life?

Present Our Bodies to God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March We Onward
Dying with Jesus, By Death Reckoned Mine
I Know Not Why God's Wonderous Grace

01 Opening Discussion

Have you ever had an argument with someone? What was the reason for the argument and what did you do to win? What kinds of benefits did you get from the argument?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is a Korean movie named, "Atomic Bomb of Love." It is about Rev. Yang—Won Son who lost his two sons to communist soldiers but adopted the one who killed his sons. This movie's message is about the strong love of God which can be more powerful than an atomic bomb.

Apostle Paul invites us to present ourselves to God as instruments (weapons) of righteousness and not let sin reign over our mortal bodies. God created the parts of human bodies but we use them as tools for sinning instead of using them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In order to have our bodies be used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it is necessary to die to sin. Sin uses parts of our bodies to fulfill our greed and desires. We have no choice but to die to sin if we do not want to be weapons of sinful unrighteousness. When humans die to sin, we can be used as instruments (weapons) of God's righteousness.

Jesus Christ was the most powerful weapon (instrument) of God's righteousness. Jesus did not live according to the desires of his flesh. In order to obey God's will fully, Jesus sacrificed the desire of his own flesh and chose to be hung on the cross. He conquered the power of sin.

Jesus was very concerned about parts of our bodies becoming the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Therefore, He commanded that "if your foot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tear it out" (Mark 9:45–47). When the parts of our bod-

ies are under the control (reign) of sin, the final consequence is death.

We are not created to follow and fulfill the desires of our flesh, but to obey God's words and become more righteous day by day.

Nowadays, many people allow parts of their bodies to be used as weapons of unrighteousness and become slaves of sin. Too many human beings hate each other, curse each other, commit violence against each other and kill each other. This is total rebellion against God, our Creator. There is no escape from death, which is the final consequence of unrighteous weapons. Christians are called to become weapon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herefore, we use the parts of our bodies to love God and others and to overcome the hatred and violence of this world with this love. Let us become instruments (weapons) of God's righteousness to conquer the unrighteousness and falseness of this world as we obey God's words to live righteous lives.

03 Into the Word

- 1. What did Apostle Paul command Christians to not obey so that sin would not reign over their mortal bodies? (v. 12)
- 2. What specific things is Apostle Paul thankful to God regarding the Roman Christians? (vv. 17–18)

M Into our life

- 1. What kinds of sinful matters did you sacrifice (kill) in order to be used as an instrument of God's righteousness?
- 2. What kind of life do you seek by presenting the parts of your bodies as the weapons (instruments) of God's righteousness?

05 Memory Verse Romans 6:11

So you also must consider y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kinds of things can you do or refrain from doing to live out God's words today?



Two Griefs



One Thing I of the Lord Desire
All Your Cares and Worries, Too.
Heart Longings

01 Opening Discussion

Have you ever grieved over the things you have done? Would you share why you regret it?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we regret things we have done, such as things we have said and things we have done. Paul also expressed grief regarding the things he had to do. He sent a letter to the church in Corinth and knew it would cause grievance within the church.

When Paul heard that there was a problem in the Corinthian church, he sent a letter of correction and rebuke. He was concerned that it might cause disturbance among the believers and their relationship might become dampened.

However, contrary to Paul's concern, when the church in Corinth received his letter they repented of their wrong doings and became sorrowful which led to repentance. The Corinthian Christians gained more admiration from Paul because of this.

Paul saw that there are sorrows that God intended and that there are sorrows that are of the world. A righteous concern is to know the will of God and this will lead us to live uprightly according to God's will. When we are living with those concerns, we will become sorrowful when we see ourselves not following the will of God. That sorrow produces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And those who grieve according to God's will know their weaknesses and will rely on God. When you go to God with your sorrows, God will take away your sorrows and turn them into joy. In other words, our sorrowful heart that desires to know God's will for us leads us to a closer relationship with God.

However, worldly sorrows make us focus on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not with God. The worries of the world make people live according to their own desire, not God's

and ultimately it will sever their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end, the worries of the world drive people away from God and lead to death.

When believers acknowledge the grief that they are not living according to God's will, their relationship with God will be restored and God is pleased. However, God will not be honored if a believer does not have a sorrowful heart when he should be repentant. In this generation where so many things grieve God, believers must have sorrowful hearts that lead to repentance which then brings reconciliation with God.

03 Into the Word

- 1. After Paul wrote a letter to the church in Corinth, he had some regret, but then rejoiced. Why? (vv. 8–9)
-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orrow that follow God's will? (vv. 10–11)

04 Into our life

-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worldly sorrow and God's sorrow?
- 2. Why have you been worrying about following God's will lately?

Memory Verse 2 Corinthians 7:10

For godly grief produces a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without regret, whereas worldly grief produces death.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your main worries? Who do you think can solve your worries?



Test Yourselves and Prove Yourself



Jesus, I My Cross Have Taken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Of Him Who Did Salvation Bring

01 Opening Discussion

What titles do you have at home, at work, or in society? What are you doing to fulfill that titl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s Paul concludes the book of 2 Corinthians, he describes his plans to visit the church in Corinth in the future. As he did on his second visit, he warns he will not spare those who sinned earlier or any of the others (v. 2). Paul wasn't condemning people. It comes from the hope that the person who has done wrong would repent after reading his letter, and the church would be restored spiritually.

In that sense, Paul says, "Test yourselves, and prove yourselves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In the past, the Corinthian church could not testify that they were living in the faith. There were divisions, strife, and slander within the church. They accepted false teachings and were evil slanderers of Paul. These things could not have happened if they were living in faith

Now, Paul expresses his desire that when he visits the Corinth church for the third time, they would forsake their sinful ways and be transformed in the truth. He wanted the divisions in the church to be dissolved and for them to become one in Christ. He urged the conflicts and fractions to be removed and to live in love and peace.

Believing in Jesus means that Jesus is dwelling in your life and causes you to live a transformed life as Jesus commanded. Sadly, we Christians, often live a life without Christ and with faithless words and actions.

Therefore, believers must always evaluate their own faith. "Am I living in faith? Is Jesus

Christ in me?" If a believer is not aware of the way they live, they are most likely living a life without conviction in faith, without knowing that their faith is futile.

Therefore, may we carefully and humbly examine how we live out our faith!

Our faith in Jesus cannot be proven by our words. James 2:18 says, "But someone will say, 'You have faith and I have works.' Show me your faith apart from your works, and I will show you my faith by my works." When faith is revealed through my life, it proves that Christ is in me. Nonbelievers surely can recognize how Christ is alive in our words, actions, and thoughts.

13 Into the Word

- 1. What did Paul tell the Corinthians to do to see if they were in the faith? (v. 5)
- 2. What did Apostle Paul want from the Corinthians? (v. 9)

04 Into our life

- 1. What are some ways you can tell if Christians are not living by faith?
- 2. Paul said, "Test yourselves and prov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How can we affirm that we are in the faith?

Memory Verse 2 Corinthians 13:5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Or do you not realize this about yourselves, that Jesus Christ is in you?—unless indeed you fail to meet the test!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are you living your life to testify that you are a believer in Jesus?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3022316**Country : **Cambodia**

Serving At: Methodist Mission in Cambodia

Home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North America

Soon Lee, Andrew

The Rev. Andrew Soon Lee is a missionary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as a country coordinator for the Methodist Mission in Cambodia. He was commissioned in the spring of 2017.

Since 1998, the Methodist Church in Singapore, the Korean Methodist Churc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mission agency of the United Methodists in France and Switzerland, and the World Federation of Chinese Methodist Churches have been cooperating in bringing about an autonomous Methodist denomination in Cambodia. As of early 2017, the church in Cambodia had 140 congregations and a membership of some 4,000. It was then represented in 10 of the country's 25 provinces.

Andrew is an ordained elder of the California-Pacific Annual Conference, where he has served pastorates in Hawaii. He was born in South Korea and lived there through high school. Migrating to the

United States, he earned a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in 2003. He received the Master of Divinity degree from Asbury Theological Seminary, Wilmore, Kentucky, in 2007. He worked in the computer field before entering the ministry and skill in that field played a major role in his faith story and call to mission.

While always regular in church attendance, Andrew recalls that he felt a sense of an incomplete relationship with God until he "experienced the amazing grace of God" through a sermon on Romans 3:23-24: "···for all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Not long after, a missionary from Bangladesh visited his church and called for someone to come there to help with a computer ministry. Andrew volunteered—for a year.

Back from Bangladesh, Andrew, encouraged by his newly married wife, followed a call into ministry and enrolled in seminary. He served as a youth pastor at Calvary United Methodist Church in Honolulu for almost three years and as a senior pastor at Parker United Methodist Church, Kaneohe, for seven years, during which time the congregation doubled in size.

Andrew's message is the amazing love that God has for all people. And he says, "God has placed in my heart a love and passion for God's people. I know that as long as I heed God's calling and walk according to his guidance, God will continue to use me for God's glory and grace."

Contact info. Alee@umcmission.org

사귐의 기도 2/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 "영적 충만" 6가지 열매

"성령의 나타나심은 아름답다"

사귐의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귐을 통해 우리 영은 하나님과 만나고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성장하고 강화된다. 에베소서 3:14에서 바울은 이것을 구하고 있다.

속사람은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 성령과의 사귐을 시작한 초기에 우리 는 대개 '나'와의 분열을 경험한다. 그동안 '나' 라고 알고 있던 내면의 자아와 구별되는 또 다른 '나'가 생기고 두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새로 생긴 나를 가리켜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불 렀다.

성령은 속사람을 통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영향을 받지 않는곳은 없다. 생각하는 것과 말, 행동 그리고 인격까지도 모두 변화된다. 바울의 성령론 연구의대가인 고든피(Gordon Fee)는 〈바울 성령 그리고하나님의 백성〉(Paul,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좋은씨앗 역간)에서 이 현상을 '성령의 감염'이라고 불렀다. 사귐의 기도는 우리를 성령과 만나게 하고 감염되게 한다. 성령에 감염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성령이다. 성령은 나의 영을 통해 활동하며 나의모든기능을 장악한다.

이렇게 성령에 감염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갈 5:22-23)라고부른 것들도 그 변화의 일종이고, '성령의 은사'

라고 부른 것도 그렇다. 성령의 열매가 감염의 결과로 생기는 인격과 태도의 변화를 가리킨다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능력과 기능에서 생기는 변화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바울도 이 두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열매'라는 비유를 사용했다면, 그 결과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선물'(은사)라는 비유를 사용했다.

'카리스마' (charisma)는 '선물'을 의미하는 헬라어다.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가리킨다. '은사'란 '은 혜로(즉, 주는 사람의 호의로) 받는 선물'을 의미한다. 따지고 보면 생명에서부터 온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하나님의 영과 교제하여 얻는 능력을 은사라고 부른다. 그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길러 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카리스마 혹은 은사라고 한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방언이나 신유처럼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만 은사라고 생각한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 인들도 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울은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다. 그가 말하려는 요점은 이것이다.

은사는 다양하나 목적은 하나다. 동일한 성령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이는 그 사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

바울은 은사에 대해 매우 중요한 원리를 천명했다. 첫째, 은사란 근본적으로 '성 령의 나타나심'이다. 성령은 필요할 경우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 귐의 기도를 통해 영성을 늘 충만하게 유지하면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은사는 유익을 끼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인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로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교만해지면 안 된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

셋째,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 신유와 같은 과시적인 은사를 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은사다. 가장 좋은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은사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랑이 없으면 제아무리 신기한 은사 가 있어도 오히려 해가 된다.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은사가 오히려 해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영성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묵묵히 도구로 내어드리라. 그 은사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돕고 조용히 물러서라. 그리고 계속 정진하여 영성을 더욱 충만하게 하라. 영성이 자랄수록 더 높은 차원의 은사가 나타난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물러서라. 이것이 우리가 이르러야 할목표다.

성령에 의해 변화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인격과 말, 행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성령이 드러나심으로 나는 사라져야한다. 성령의 아름다움만이 밝히 드러나도록 도와야 한다. 진정한 교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아름다운 나타나심이 있어야한다.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 혹은 은사 운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감각적으로 흘러온 결과 성령 기피층이 사회에 널리 퍼지고 말았다. 한국 교회는 그간의 성령 운동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성령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력이다. 생명력이 시들면 아무리 큰 몸집도 소용이 없다. 사귐의 기도는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깊이 사귀고 이로써 성령의 아름다운 나타나심이 계속된다면 희망이 있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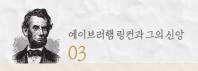
청년에이브의눈을 뜨게 한 뉴올리언즈 여행과 뉴 세일럼

김명희 집사 _ 와싱톤한인교회, VA

청년 에이브는 인디애나에서 큰 부자로 알려진 겐트리 씨의 운수사업 보조원으로 일을 했다. 하루는 겐트리 씨로부터 농산물을 미시시피강 하구에 있는 대항(大港) 뉴 올리언스로 운송할 것을 제안받았다. 그는 에이브라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고 믿었다. 목수 일에 익숙한 에이브는 뗏목 배를 엮어 수송선을 만들었고, 배 위에는 작은 은신처로 방도 짓고 두 개의 노와 방향타도 만들었다. 겐트리 씨의 아들 알랜이 이 배의 선장이 되어 19세의 링컨과 함께 농산물을 가득 싣고 물살을 갈랐다.

배의 속도는 시속 5~6마일이었고 밤이 되면 물가에 배를 매어놓고 별빛쏟아지는 하늘을 우러러 잠을 청하곤 했다. 그들이 노저어 내려가던 오하오강은 켄터키를 지나면서 미소리강으로 합치게 되는데 이 강이 테네시 주에 이르면 "물의 아버지"라일 컬어지는 대하(大河), 미시시피강으로 합류된다. 미시시피강은 북쪽에 있는 미네소 타 주에서 시작하여 여러 물줄기가 합쳐지는 강으로 물살이 세고 바람이 불면 바다 같은 풍랑도 만들어내는 큰 강이다. 달구지로만 여행이 가능했던 19세기 초, 미시시 피강은 미국 땅 내륙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동맥이었다. 미시시피강 남쪽 끝에 세계적인 대항(大港) 뉴올리언스가 있었다.

어느 날 배를 물가에 매어 놓고 자는데 7명의 흑인 강도들이 배를 빼앗으려고 쳐들어왔다. 그러나 행동이 빠른 에이브는 긴 팔로 노를 휘저으며 그들을 쫓아냈다. 두명



의 도둑은 물에 빠졌고 다른 도둑들을 숲속으로 도망갔다. 그들은 그날 밤으로 그곳 을 떠났다.

이때 받은 상처로 일생 동안 에이브의 얼굴에는 흉터가 남게 되었다.

뉴올리언스에 도착한 일행은 화물을 팔고 뗏목 배도 팔아넘겼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구경 삼아 도시에 묵었다. 뉴올리언스는 시골뜨기 청년 에이브가 보게 된 최초 의도시였다.

인구 4만이 넘는 도시, 세계적인 대항구 뉴올리언스에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면화, 사탕수수, 담배 등 농산물들이 산적했다. 공장주, 뱃사람, 영국인, 불란서인, 멕시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거리에는 철사 줄에 묶여 있는 노예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거리에는 술집들이 줄줄이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은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다. 알랜과 링컨은 3개월 만에 증기선을 타고 집에 돌아왔다. 링컨의 월급은 8불, 도합 24불을 벌어 아버지에게 드렸다.

1829년 링컨 가족은 경작하던 땅을 125불에 팔고 일리노이주 메이컨 카운티로 이사했다. 에이브의 가족은 마차로 이사했고 그는 가족을 새로운 경작지 Goose Neck Prairie에 모셔다드리고 New Salem이라는 새로운 마을로 떠나갔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다. 그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다. 그는 드디어 '성인'이 된 것이었다. 그가 이 마을에 도착하던 날 마을에서는 지역 선거가 벌어지고 있었다. 에이브는 곧 선거인 이름을 기록하는 선거 사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가 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났을 때에 에이브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아는 사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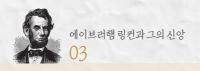


1831년 22세가 된 링컨은 뉴 세일럼에 있는 상인 호울과 어울리게 되었다. 통나무배에 상품을 싣고 뉴올리언스에 간 일이 있던 링컨은 호울 씨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젊고 힘이 좋았던 링컨은 미시시피강을 항해하는 모험을 즐겨 했던 것이다. 호울 씨의 자본으로 통나무배를 다시 만들고 삼촌인 존 행크스와 의붓 동생 존스톤과 더불어 배에는 돼지고기와 옥수수, 돼지 새끼들을 싣고 상가몬강에 배를 띄어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미시시피강을 내려갔다. 3개월이나 걸리는 긴 항해의 길, 기다란 뼈대 속에 젊음이 듬뿍했던 링컨은 서푼짜리 꿈을 가슴에 보물처럼 품고 활짝 펼쳐지는 생의 여정을 시작하듯 물결 넘실거리는 강건한 미시시피강을 노저어 내려갔다.

두 번에 걸친 뉴올리언스 여행은 시골에서 나무와 순진한 마을 사람들속에서 성장한 에이브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추함을 보았다. 사람을 노예로 만든 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었다. 사회제도는 법으로 운영되었다. 그는 온갖 꿈과 상념으로 혼동되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발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언제나 편을 들어주었던 의붓어머니. 좋은 아이라고 자랑하시던 어머니의 사랑.' 그는 이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어른이 된 것이었다.

그가 청소년 때에 쓰던 공책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 되었다.

시간, 시간이란 얼마나 연기처럼 하잘 것 없는 것인가 그리고 '나날들'은 얼마나 빠른 것인가 그것은 인디언 화살처럼 민첩하여 하늘의 별처럼 날아간다. 여기에 있던 현재의 순간은 성급히 밀려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날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만 그 날들은 '과거'라고 우리는 말한다.



누구의 시인지는 모르지만 젊은 에이브가 이런 종류의 시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좀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이미 '시간'의 관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듯하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누이의 죽음을 보았다. 생명의 한계성, 사람에게는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있을 뿐이며 그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의문을 던져준 듯하다.

그가 꿈을 가지고 새롭게 도착한 뉴 세일럼은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줄지도 모른다. 그를 뉴올리언스로 보냈던 호울 씨는10불 짜리 땅을 사서 통나무집을 짓고 잡화상을 시작했다. 에이브는 잡화상의 매니저가 된 것이다. 곧 마을에는 링컨의 정 직한 성격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루는 잘못으로 5전을 더 내고 간 사람에 게 돈을 돌려주려고 6마일을 걸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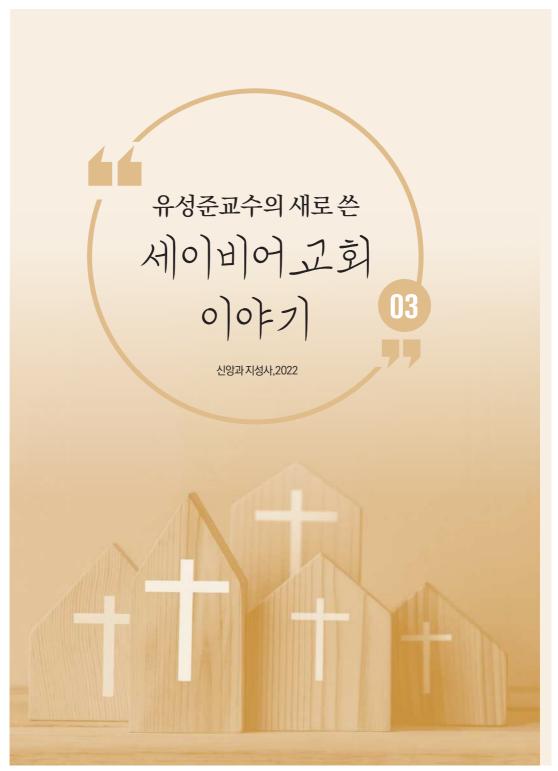
이 시절 에이브는 가장 뛰어난 레슬링 선수로도 소문이 나 있었다. 게임을 좋아하던 호울씨는 살롱을 하고 있는 빌클레이에게 10불의 내기를 걸자고 제안했다. 그당시 가장 힘센 챔피언으로 이름난 잭 암스트롱을 링컨이 이길 거라는 전제의 내기였다. 링컨-암스트롱 레슬링 메치의 소문이 나자 먼 마을 사람들까지도 구경하러 호울씨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돈, 칼 또는 담배, 술을 담보로 내기를 걸었다. 키는작지만 강건한 몸집의 암스트롱이었다. 시합이 시작되자 에이브는 그의 기다란 팔로 암스트롱을 멀찍이 잡고 씨름을 하며 그의 힘을 소비하게 하고는 때를 보아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그를 땅에 엎어 치고는 양쪽 어깨를 땅에 닫게 했다. 이것을 본 암스트롱의 패거리들이 에이브에게 달려들었다. 위험을 느낀 에이브는 가게 벽에 등을 대고 "누구든 나와라. 씨름이든 경주이든 상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암스트롱 자신이 군중을 헤치고 나와서 에이브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 사람은 정당하게 싸웠다"고 하고는 "에이브는 이 마을에들어 온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호울 씨의 잡화상을 경영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그가 만난 최초의 양키였던 알랜이라는 마을의 의사는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에이브는 알랜을 좋아했다. 북쪽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알랜은 조용하면서도 열정적인 반-노예주의자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병을 무료로 봐주고 일요일에 일하여 번 돈

은 몽땅 교회에 바쳤다. 이 사람이야말로 에이브가 만난 몇 사람의 양키 중 진정한 양키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해 준 사람이었다. 에이브는 법학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법과 사회질서 그리고 정치에 관한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아랫마을 학교 교장인 그래햄을 찾아가 영어 문법을 배웠다. 뉴 세일럼의 토론회 클럽에 가입하여 최초의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신 없는 학생처럼 사과하는 문구로 시작했으나 끝내 훌륭한 연설을 하여 좌중을 놀라게 했다. 토론회 클럽 회장인 롯데지 씨는 "에이브의 머리속에는 재치 있는 우스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 세일럼 마을은 진정코 에이브에게 좋은 마을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마을에서 그는 희미하게나마 자기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암스트롱의 말대로 에에브는 "이 마을에 들어온 가장 좋은 사람"이 될 각오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편집자주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의 신앙》 연재를 시작하는 김명희 집사는 시인이며, 번역문학가로,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조지워싱톤대학에서 심리학과 창작을 공부했다. 그녀는 국무성에서 통역관으로 오랜 기간 일하며 시인으로 등단하였고, 영시를 한글로, 한어시를 영어로 다수 번역했으며, 이상(李箱)의 오감도(烏瞰圖)를 영어로 번역, 출간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링컨의 전기를 읽고 매료되어 워싱톤 중앙일보에 〈링컨 스토리〉를 연재했다가 후에 〈에이브러햄 링컨〉 (도서출판선)을 출판했다.



철저한 내적훈련과 외적실천의 혁신적인 모델교회

세이비어교회가 세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5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세이비어교회의 독특한 목회가 소개되었을 때부터이다. 그리고 세이비어교회의 교 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오코너(Elizabeth O'Conner)가 세이비어교회의 목회철학을 정리한 필독서인 "헌신에로의 부름(Call to Commitment)"과 "내적인 여정, 외적인 여정(Journey Inward, Journey Outward)"을 소개하며 21세기 교회가 갖추어야 될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모델로 주목받게 되면서부터이다.

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세이비어교회를 찾아올 때는 소문을 듣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목회철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교회 안의 훈련기관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에 찾아왔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결단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시작되며 시행했던 중요한 한 가지는 모임의 조직과 훈련이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 모임과 훈련이 바로 1988년에 세워진 섬김의 리더십 학교(The Servant Leadership School)로 발전하였고, 지교회 형태의 신앙공동체(Faith Community)들이 세워졌으며, 각공동체 안에 소그룹 미션 그룹(Mission Group)들이 시작되었다.

2 핵심사역인소그룹 미션그룹 시작

소그룹 미션그룹을 만들기 전 사역 초기에 그들은 소그룹 혹은 성장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들을 조직하였다. 소그룹은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역 초기 세이비어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영적인 훈련(Inward Journey)의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외적인 실천(Outward Work)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손이 분주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경험하

게 되었다. 반대의 경우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훈련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고든에게 있어서 영적인 훈련과 외적인 실 천, 이 두 가지의 통전적인 적용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목회철학이었다.

누구나 기도모임, 성서공부모임, 심리치료모임 등 그들이 원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교인의 자격은 영적인 훈련과 외적인 실천을 한 모임에서 모두 갖추는 것이었다.

소세이비어교회의 정교인 입교과정

세이비어교회의 정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1) 하루에 한 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 하는 것, 2) 약 2-3년이 소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와 서번트 리더십 학교의 후련과정에 참여, 3) 온전한 십일조 헌금 드리기, 4) 소그룹 미션 그룹 모임에 매주 참 여, 5) 45가지 지역사회 사역 중에 은사별로 자원봉사자로 참여, 6) 매년 각 공동체별 로 주관하는 3박 4일 대침묵 영성수련회 참석, 7) 자신의 삶의 전 지경을 포함하는 영 적자서전을 쓰고 공동체에 발표하기. 그리고 8) 교인의 자격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 는 것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방하여 동료 교인들과 함께 좀 더 깊은 공동생활을 추 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교인의 자격은 세이비어교회가 초기부터 지향해 온가장중요한 원칙이다.

4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중요성

1950년대 초부터 세이비어교회는 소명에 관해 분별하는 사역에 집중했는데, 핵 심 내용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이다. 우 리 모두는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은 기도와 예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넓히고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루는 것, 그리고 영성일기를 작성

하고 영성수련회를 갖는 것 등이다. 이런 영적 훈련들을 거쳤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진정으로 가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훈련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고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를 이룬 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 하여 진정한 교회가 되는 존재의 물음입니다. 여럿이 연합하여 하나의 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비전,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5 근본적인 것을 지키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교회

세이비어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교회에 관한 다양한 목회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모두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성서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교회라는 이름의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에 맞서고 반대하는 것이 없다면, 그 모임은 신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때 우리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다시 말해 그 비전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이제 막 그 근본적인 것에 관하여 배우고 그것을 실천 하기 시작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주님으로 섬기지 못 할 때가 많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 때가 많다. 근본적인 원칙들은 그것을 처음 발견하여 우리 가 운데 주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

계속되는 지역사회 소외자들을 위한 복지와 치유사역

지금도 세이비어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워싱턴 디시의 아담스 몰간 지역의 백여 명 의 빈민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일대일 멘토링과 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고 매년 천여 명의 실업자들을 훈련시키고 취업시키는 취업사역을 진행하고 있 다. 또한 34개의 침실과 의료진이 잘 갖추어진 미국의 유일한 노숙자병원인 그리스 도의 집,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역, 매년 오백 명이 넘는 마약중독자, 알콜중독 자들을 위한 미국의 국가적 중독사역 모델인 사마리아 주거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든 코스비 목사는 세이비어교회가 방대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많은 숫자는 거의 필연적으로 비 인격화와 제도주의로 향하고 헌신을 약화시킵니다. 세이비어교회는 숫자를 통해 오는 힘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내적인 영성, 외 적인 사역,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에 중심을 둔 작지만 고도로 현신되고 혼 련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한다.

코스비 목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교회본질의 실천

코스비 목사가 2008년 은퇴한 후 세이비어교회는 독특하게도 후임자를 정하지 않았다. 대신 세이비어 본부교회를 해체하고 그동안 함께 사역하였던 10개의 신앙 공동체(Faith Community)를 독립시켰다. 나는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교회 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교회주의. 성장주의 일변도의 철학에서 벗어나 중대형

교회는 한국교회의 80%가 넘는 소형교회와 미자립교회의 역량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지원하고 큰 교회를 작은 교회로 나누어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고든 코스비 목사는 세이비어교회를 통해 예언자적 설교와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한하나님의 비전을 보다 온전히 삶으로 구현하도록 도전했



고, 그 자신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에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일생 동안 헌신했다. 고든은 동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영역의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든 압제당한 자들을 향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던 '진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도전했다.

고든은 일생 동안 워싱턴 DC 빈민지역에 스스로 작은 신앙공동체 교회들을 개척하고, 비영리단체 사역을 조직하고, 공동선을 추구했었다는 점에서 꿈꾸는 이상가인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가였다. 임종 시까지 그는 감옥제도를 폐지하고 출소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이비어교회의 가장 나중에 시작된 사역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Becoming Church의 멤버였다. 이런 점에서 코스비목사가 보여준 세이비어교회의 영성과 사역의 철저한 균형을 강조하는 이 모범이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의 미래교회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어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쉽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족 QT Letter

장효진_뉴저지연합교회

2001년 부터 지금까지 매해 늘 아빠가 이맘땐 이곳에서 우리들과 지냈는데 처음으로 아빠가 한국에 혼자 계시네. 갑자기 몇 주 전 소천하신 할아버지 일로 한없이 몸과 마음이 약해지신 할머니, 또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로 인해 근 20년 만에 겨울 방학에 아빠가 이곳에 못 오게 되어 성준이 결혼식도 연기하게 되었구나. 2021년을 시작하며 가족 간에 계획한 일들이 다 연기되어서 너희들도 마음이 섭섭분주하지? 아빤 한국에, 엄마는 NJ에, 또 너희들은 NY에 다 떨어져 있지만 온 가족 똑같이 읽고 share 할 새해 첫 가족 OT Letter를 보낸다.

예전에 희곡을 좋아하던 성준이가 특이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희곡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기보다는 아빠나 엄마는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좋아하네…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야.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로서는 사람들의 만남, 서로의 대화 내용과 대화의 전개, 그들의 생각등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성경에도 당연히 여러 종류의 만남들이 나오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만남에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게된 단다. 바꾸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의 경우도종 보인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단순한 처음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만남이라고 할까? 이 사건은 누가복음 이 만기록되어 있다. 이미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베드로를 볼수 있지.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

은 고기를 잡은 후에 하는 말을 주목해 보자. 누가복음 5장 8절이다. 그전과 다르게 예수님을 '주여(Lord)'라고 부르고 있단다. 단순한 명칭의 문제일까? 바라보는 대상이 나에게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저 눈에 보이는 위인, 선생, 또는 성인 정도에 머무는 분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것이다. 즉 자연세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supernatural) 분을 인식하게 된 것이지. 자신의 잔뼈가 굵은 일터인 갈릴리 바다에서 전공분야인 어부도 알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시는 신성으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에게서도 극명하게 보여지는데,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prophet)로만보던 예수님을 메시야(Messiah)로 보게 되는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은 추후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다시 누가복음 5장 8절로 돌아와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후,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와우! 하지 않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상과 다르게 자기를 떠나 달라고 말하고있지. 왜일까? 우리가 만약 나의 생각,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는 분 앞에 서있다면? 솔직히 나를 만든 분 앞에 서 있다면? 아마도 지금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 달라고하지 않을까?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이 수반된 우리 내면의 솔직한 마음일 거라 생각한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가 이상하다고 한 베드로의 말은 사실 모든인간이 갖는 기본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구약에서는 이사야²⁾의 고백이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오늘은 베드로를 띄우는 사건이니, 후에 십자가를 앞두고 로마군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을 보며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속의 우리 모습은 잠깐 접어두자꾸나.

¹⁾ **누가복음 5: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mark>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mark> 이다 하니

²⁾ 이사야 6: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와 성경 필사

유병욱 권사_중앙연합감리교회

2020년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COVID-19으로 한 해를 두려움과 걱정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게 stop 되고 일상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 도 했습니다.

"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할 정도였지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 없이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이었나를 생각나게 했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한없는 왜소함이 느껴지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일상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던 그 모습들은 언제나 회복될런 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성도님들의얼굴과 이름이 하나둘 잊혀져 가는 저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무슨 뜻이 있으신 걸까?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의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되는가를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이라는 이름에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낯설음이 아직도 저에겐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

밍으로는 예배를 보는거지 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저에게 있어 교회는 하나 님이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성 전이고,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긴장된 모습으로, 옷도 단정하게 갈아입고 TV 앞에 앉아 있던 나의 모습이 언제부터 인가 잠 옷바람으로 TV 앞에 앉아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배웠음에도 꼭 예배는 교회에 가야만 한다는 의식이 있다보니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태하고 해이해진 모습을 추스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COVID-19 상황을 담대히 견뎌내기 위하여 제가 선택한 것은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성경 일독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두려움 없이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묵상해 보자는 마음으로 필사를 시작했고 지금도 열심히 매일 몇 장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암송까지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은 운동력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가 다 끝나기 전에 COVID-19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으로만들고 싶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66권을 필사하려고 합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이어려운 때 단련하여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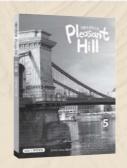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 10 🔲 \$ 20 🔲 \$ 30 🔲 \$ 50 🔲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66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9

<u>"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u>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u>안정섭</u>, 818-785-3256) 백리한인연한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어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김태호,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213-235-7659)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두,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서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농희섭, 770-495-8020) 어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너중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mark>엄모성, 847-998-4610)</mark>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울랜드딱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mark>영완, 702-595-3678)</mark>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운진, 702-434-9915)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고레이스붿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반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남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하인연합감리교회(나옷철, 803-447-6186)

• Tennessee(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박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월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전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테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성톤사검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괌)

괌한인선교교회(<mark>김택수</mark>)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2/01			2022/02			2022/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창세기	1	01	창세기	27	01	출애굽기	1-2
02		주일	02		28	02	Ash Wed.	3
03		2	03		29	03		4
04		3	04		30	04		5
05		4	05		31	05		6
06		5	06		주일	06		주일
07		6	07		32	07		7-8
08		7	08		33	08		9-10
09		주일	09		34	09		11-12
10		8	10		35	10		13
11		9	11		36	11		14
12		10	12		37	12		15
13		11	13		주일	13		주일
14		12	14		38	14		16
15		13	15		39	15		17-18
16		주일	16		40	16		19-20
17		14	17		41	17		21-22
18		15	18		42	18		23-24
19		16	19		43	19		25
20		17	20		주일	20		주일
21		18	21		44	21		26
22		19	22		45	22		27
23		주일	23		46	23		28
24		20	24		47	24		29
25		21	25		48	25		30-31
26		22	26		49	26		32
27		23	27		주일	27		주일
28		24	28		50	28		33-34
29		25				29		35-36
30		주일				30		37-38
31		26				31		39-40

2022/04			2022/05			2022/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마가복음	1	01	시편[-][주일	01	레위기	1
02		2-3	02		1-2	02		2
03		주일	03		3-5	03		3
04		4-5	04		6-7	04		4
05		6	05		8-9	05		주일
06		7	06		10-12	06		5
07		8	07		13-16	07		6
08		9	08		주일	08		7
09		10	09		17-18	09		8
10	고난주일	주일	10		19-21	10		9
11		11	11		22-24	11		10
12		12	12		25-27	12		주일
13		13	13		28-30	13		11
14		14	14		31-33	14		12-13
15		15:1-41	15		주일	15		14
16		15:42-27	16		34-35	16		15
17	부활주일	주일	17		36-37	17		16-17
18		16	18		38-39	18		18
19	고린도전서	1	19		40-41	19		주일
20		2-3	20		42-44	20		19
21		4	21		45-48	21		20
22		5-6	22		주일	22		21
23		7	23		49-50	23		22
24		주일	24		51-53	24		23
25		8-9	25		54-56	25		24
26		10-11	26		57-60	26		주일
27		12	27		61-64	27		25
28		13-14	28		65-67	28		26
29		15	29		주일	29		27
30		16	30		68-69	30		4
			31		70-72			

2022/07			2022/08			2022/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시편III-V	73-75	01	민수기	1-2	01	로마서	1
02		76-77	02		3-4	02		2
03		주일	03		5-6	03		3
04		78	04		7	04		주일
05		79-81	05		8-9	05		4
06		82-83	06		10	06		5
07		84-87	07		주일	07		6
08		88-89	08		11-12	08		7
09		90-91	09		13-14	09		8
10		주일	10		15	10		9
11		92-97	11		16	11		주일
12		98-102	12		17-18	12		10
13		103-104	13		19	13		11
14		105	14		주일	14		12
15		106	15		20	15		13
16		107-108	16		21	16		14
17		주일	17		22	17		15
18		109-112	18		23-24	18		주일
19		113-118	19		25	19		16
20		119:1-56	20		26	20	고린도후서	1-2
21		119:57-112	21		주일	21		3
22		119:113-176	22		27	22		4:1-5:10
23		120-125	23		28	23		5:11-7:1
24		주일	24		29	24		7:2-16
25		126-132	25		30	25		주일
26		133-137	26		31	26		8-9
27		138-140	27		32	27		10
28		141-143	28		주일	28		11
29		144-146	29		33	29		12
30		147-150	30		34-35	30		13
31		주일	31		36			

2022/10			2022/11			2022/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신명기	1	01	여호수아	1	01	마태복음	3-4
02		주일	02		2	02		5
03		2	03		3	03		6
04		3	04		4	04		주일
05		4	05		5	05		7
06		5-6	06		주일	06		8
07		7-8	07		6	07		9
08		9	08		7	08		10
09		주일	09		8	09		11
10		10-11	10		9	10		12
11		12	11		10	11		주일
12		13-14	12		11	12		13
13		15	13		주일	13		14
14		16-17	14		12	14		15
15		18	15		13	15		16
16		주일	16		14	16		17
17		19-20	17		15	17		18
18		21	18		16-17	18		주일
19		22	19		18	19		19
20		23	20		주일	20		20
21		24-25	21		19	21		21
22		26	22		20	22		22
23		주일	23		21	23		1
24		27	24		22	24		2
25		28	25		23	25	성탄절	주일
26		29	26		24	26		23
27		30	27		주일	27		24
28		31	28	요엘	1	28		25
29		32	29		2	29		26
30		주일	30		3	30		27
31		33-34				31		28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윤호, 홍사라, Ester Kim
 ❖ 목회자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이보영, 조기현, 조선형,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 편집문의
 ☆ 변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배혁 목사 (샌안토니오한인연합감리교회, TX)

❖ 주일 칼럼

김기석 목사 (청파감리교회, 한국) 왕태건 목사 (Hackensack UMC, NJ)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경기) 홍진호 목사 (시카고중앙연합감리교회, IL)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